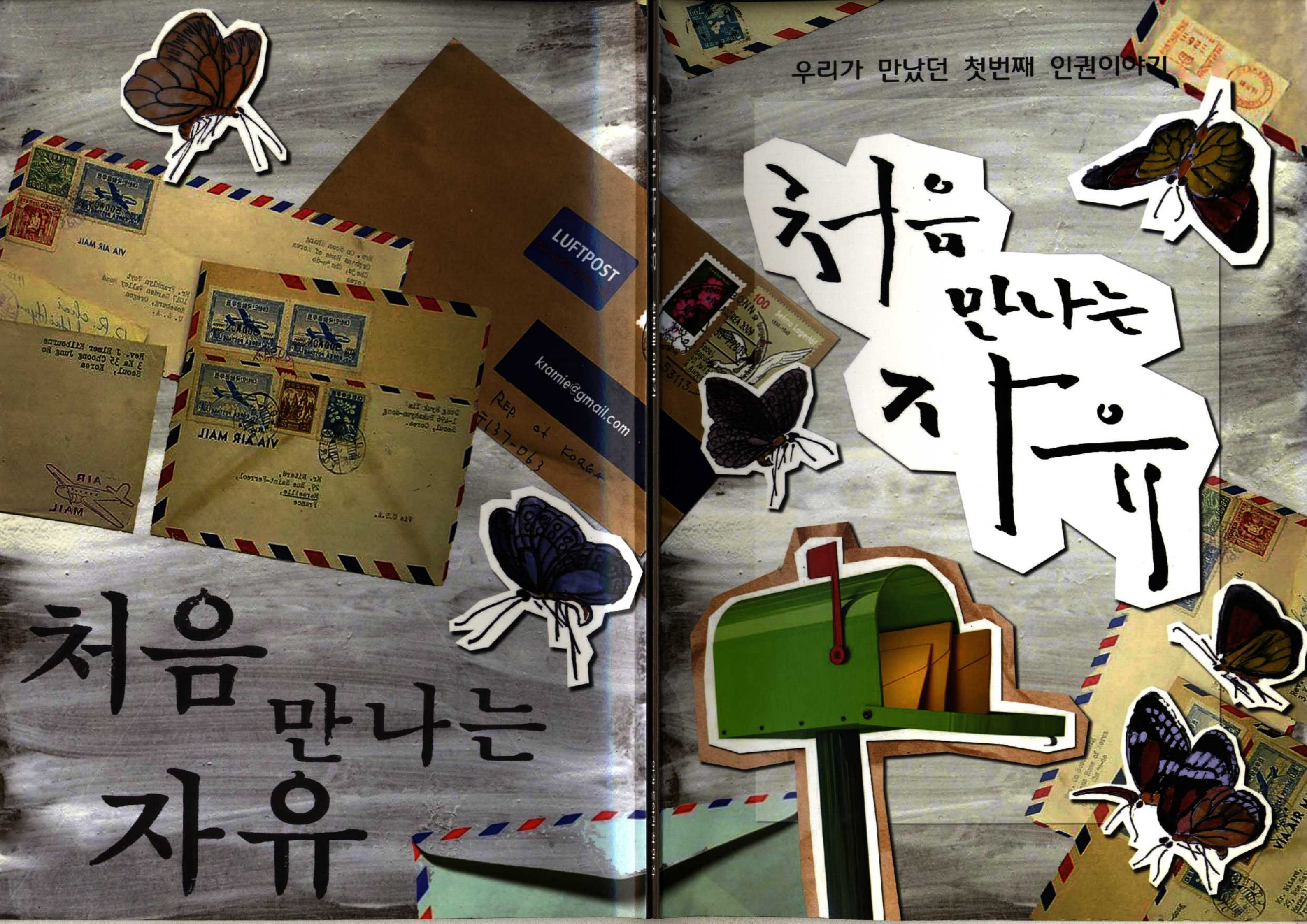


우리가 만났던 첫번째 인권의 이야기

처음 만나는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



LUFTPOST

kramie@gmail.com
REP of Korea
T137-063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영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뒤에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원은 있다.
그리고 이때가 내가 영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간,
살아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나는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부실파를 만들어 최초로 불을 켜 사람,
최초로 옷감을 짜거나 씨름 심을 여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 행위가 기억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억된다해도 영원히 기억되진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한 일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파괴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으리라.
그 점에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리라.
책이나 어떤 발견 어떤 말
심지어는 스쳐지나가는 말이라도
또한 관대한 행위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영원한 것이 되리라.

CONTENTS

- 4 부장의 글 ... 김지윤
- 6 대화와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 ... 이우재
- 11 '인권, 교문을 넘다' 세미나
 - 학생인권, 학생과 교사의 다름인가 ... 유현주, 최하현
 - 중립이라는 감옥,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 ... 김상은
 - 휴대전화와 함께 추방되는 것들 ... 배은혜
 -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가 놓친 질문들 ... 김지윤
- 23 우리가 잊고있었던 것들 ... 원가영
- 25 남영동 인권센터와 영화 '남영동 1985' ... 김상은
- 31 영화속 인권이야기 '파수꾼' ... 김지윤
- 38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42 20년간의 수요일 ... 유흥지, 안상아, 강승연
- 46 한홍구 강사님의 '청소년과 평화' ... 배가미

- 49 전쟁과 평화 ... 이승희
- 51 다큐멘터리 후기 - 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 양혜원
- 53 난다씨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본
다는 것' ... 이수연
- 55 2012 의정부청소년동아리 네트워크 행복동네 페스
티벌 'Tok talk' 후기 ... 김은정
- 58 '청소년과 사랑' 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 이우재, 조현기, 김상은
- 67 이한 강사님이 들려주는 '이것이 공부다' ... 홍유진
- 69 우리와 '다를 권리' 에 대하여 ... 원가영
- 78 동아리 연혁

동아리 부장의 글

2011년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제가 송현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이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해이기 때문이지요. 고등학생이라면, 아니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아실겁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자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12년 4월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별로 제정 및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 중 경기도 교육청이 먼저 공포되었죠.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두발 자유화,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 특정 종교 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 휴대전화 소지 자유화, 모든 학생 대상 일괄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때 학생 참여 의무화, 재학중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퇴학 등 차별 금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입니다. 제가 입학할 송현고등학교도 이를 적용하여 두발자유화가 되었고, 3월 초반을 제외한 이후 야자도 자율적으로 개정되었죠. 휴대전화 또한 수업시간 중 사용금지를 빼곤 쉬는 시간에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체벌도 이루어졌었고, 분실물 발생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분실한 학생 둘이서 학생들을 모두 내보낸 후 소지품 검사도 이뤄졌었죠.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한 학생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학생 및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교과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교복 수선은 꿈도 못꿨죠. 초등학교 때부터 법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던 제가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중학생때였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권조례가 시행될 고등학교에 입학한 3월. 선배들은 동아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저 또한 어느 동아리에 들어갈까 하나하나 유심히 보던 그 시기에 같이 졸업했던 친한 친구가 담임선생님께서 '인권 동아리'를 만드니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를 해줬죠. 푸릇푸릇한 봄내음을 풍기는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동아리를 시작으로 저는 '인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기점'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1학년에는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4월 즈음에 갔던 봄소풍도, 이주민 노동자 세미나도, 2학기 오창익 선생님 강연도, 스티커 설문조사를 준비했던 솔피제도 성의있게 대하지 못했고,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서자마자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더군요. 제가 동아리원들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더 책임감있게 되고, 작년의 활동을 반성하게 되는 시기였어요. 동아리 첫 모임에 욕심이 생겼어요. 올해 동아리는 작년과 같은 활동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요.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부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저는 부장으로 뽑혔습니다. 인권동아리 '처음만나는 자유' 부장 2학년 김지윤.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저를 뛰어다니고 열정을

쏟아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밤을 새서 자료를 만들고, 도움이 될만한 책 자료나 단체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나 1학기에는 만남도 적었고, 세미나를 준비해야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동아리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마무리하는 기간에 동아리에서 윤독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때 읽었던 '열정세대'라는 책을 통해 '아수나로'라는 청소년인권행동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수나로 경기도의 몇몇 지부에서 청소년 '마시썰' 인권캠프를 주최한다는 정보를 얻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는 것부터 다르게 가보는 방식으로 동아리원들과 2학기 활동들을 같이 계획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동안 동아리를 이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문학 중 '인권'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동아리원들을 이끄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10월부터는 점점 벽차지기 시작했어요. 동아리를 어떻게 이끌어야할까보다 같은 동아리원으로서 친구에게 다가가는 대인관계가요. 간단한 것 하나 도움을 요청 하지 못해서 저 혼자 속앓이 한 적도 많았고, 오해도 점점 많이 쌓이게 되더군요. 그럴수록 투정도 투정이지만 저 자신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다음 동아리 부장을 뽑는 부장선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게 되더라고요. '난 못했으니까, 난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데 후임은 이런 고충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2012년 겨울, 유난히도 추웠고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아리원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동아리 생각만하면 쓸쓸하고 후회를 합니다. 친구로서 선배로서 다가가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고, 딱딱하게 이끌었다는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큼니다. 수직적인 관계로서 사람들을 대한 미안함도 커요.

후배들이 동아리를 이끌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 2월, 저는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다혈질에 투정만 부리던 철없던 모습의 김지윤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의 김지윤으로 동아리를 졸업하게 되겠지요. 직접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잡지 지면을 통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동아리원들에게 고마움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는 걸. 지금도 그 미안함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정말 미안합니다. 친구로서, 선배로서, 부장으로서... '처음만나는 자유'는 졸업하고 사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작년보다, 한달 전보다,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이젠 떠나 보내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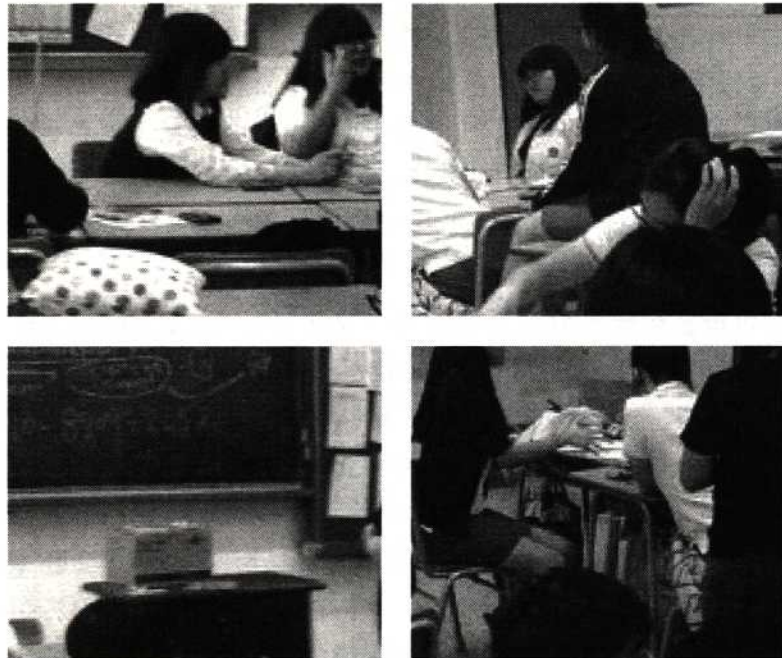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인권동아리 '처음만나는 자유'!

송현고 2학년 김지윤

대화와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

-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송현고등학교 3학년 이우재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무척이나 힘듭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 속에서 많은 도움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에게까지도 배려와 이해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모하거나 얇은 대인관계의 형성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서로간의 대화보다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등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더 선호하게 되어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의는 타인과 만남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타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예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의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예의가 지니는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도 각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예의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비효율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개체는 생존에 있어서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 상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이에 대한 반감 혹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교류를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현대는 극심한 경쟁이 요구되고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시하게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면 이렇게 안

정적인 사회 구조는 확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한 근본적인 원동력은 단일화가 아닌 다양화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능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능통하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법으로 처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초인적인 존재들로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사회는 소수의 뛰어난 판단력과 능력으로 운영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씩은 있지만 그 종류는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야 사회는 운영되고 변화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의한 시장의 단일화보다도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다양화된 시장은 더 많은 상품들과 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고 이는 사회 전반에 많은 혜택들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시장구조는 자본이 대기업에게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은 중소기업과 같은 시장 기반이 적어 대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을 시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대기업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대기업이 타격을 입은 후 시장의 피해복구능력은 현저히 낮아져 결국 시장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도출 시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고 요즘에는 실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다양성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다양성과 인권 즉, 기본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앞서 말한 기본권을 위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치(治)자와 피치(治)자가 동일한 정치체제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어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정치체제는 다양성의 존중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는 정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란 'justice'의 의미인 정의로, 어디까지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어디

까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하는 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힘든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존중해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견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휴머니즘적 요소인 무언가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편차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니고 있는 그 무언가는 바로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다른 이름은 인권으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의견은 존중받고 발현될 권리가 지켜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견이 발현된다면 크나큰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 기능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헌법을 만들어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헌법을 최고 법으로 적용시켜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율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위반 하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민주주의 속에서 다양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리 중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식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정치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 의견이 나와 의견을 서로 조정하는 것 보다 모두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논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가 힘들고 간혹 포퓰리즘으로 인한 우민정치가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대부터 대의 민주제가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기구의 힘이 커짐에 따라 정치인인 뉘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꾸겠다고 결심했을 때 대통령과 같은 정치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지니는 비효율성은 국가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어 근대 사회에서는 교육 및 대중매체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가치관을 단일화 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민의 단결과 효율성으로 국가적 이득을 노리는 제국주의 및 전체주의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가라는 집단의 최대 이득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렇듯 집단에게 최대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

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시되는 사고가 만연해짐과 더불어 대의제의 한계로 인한 국민과 정치가 사이의 괴리는 국민의 관심이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국정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로 형성된 국가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혼란이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기게 된 목적이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루거나 현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맨 처음 나왔던 예의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예의는 상대방이 살아온 경험과 또 그 사람이 지녀온 생각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예의는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합니다. 즉,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개방성을 가지고 타인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존중함으로써 대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가치관의 격차를 줄여나가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화의 방식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생각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는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사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고 이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 이를 깨닫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늘고 있어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예의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하게 되는 3학년 이우재라고 합니다. 제가 3학년 때는 입시를 핑계로 활동을 별로 못한 것 같아 이렇게나마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배로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인권동아리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왜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 이 정도로 밖에 설명을 못해드리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을 항상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세미나는 4월 13일 1학년 2반 교실에서 열렸습니다. 벌써 동아리 활동이 1년차인 친구들과, 새로 들어와 아직은 세미나가 낯선 친구들 모두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미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공부한 책은 인권교육센터들에서 기획, 공현, 박민진, 배경내,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이 공동 저술한 '인권, 교문을 넘다: 학생인권쟁점탐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1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늘상 가져왔던 '불만'들에 대해,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권리'들에 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권, 교육을 넘다'는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여러가지 질문들을 모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각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책 속의 14가지 주제들을 선택해 친구들과의 세미나를 위한 발제문을 써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써온 발제문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설명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문답을 해보기도 하며 서툴렀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아쉬웠던 첫번째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지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친구들의 발제문을 통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학생인권, 학생과 교사의 다툼인가?

송현고 2학년 유현주

1. 학생인권 vs 교권?

대부분은 학생인권과 교권 중 하나가 지켜지면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체벌이 금지된 후부터 학생을 단번에 제압할 방법이 없어진 교사들은 소위 '무능한 교사'로 분류하면서 교권이 무너졌다고 본다.

교권이 학생에게 겁을 주고 강력하게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것인가? 교권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학생을 가르칠 권리이지 권위가 아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학생들을 구원해주려는 것이지 막나가라고 발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2. 학생 = 교사

한 명이 다수를 지배하는 듯 한 구조. 반항심이 절로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교사는 국가의 지시대로 학생은 교사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각자의 권리를 찾는 문제는 서로의 탓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교사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권위가 집중 되지 않으면서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의 수업을 만들어 간다면 학생과 교사는 서로 존중하게 될 것이다.



1 학생인권, 학생과 교사의 다툼인가?

송현고 1학년 최하현

요즘 들어 더욱 더 교사와 학생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와 그에 대한 처벌만을 관심 갖을 뿐, 우리는 그 싸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그저 교사 또는 학생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원인은 학생인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추락하고 있는 교사의 권리이다. 교사의 권리는 내가 알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한계선이 있다. 그에 비해 교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너무나 많았다.

두발 복장을 단속하는 이유는 교사가 가르칠 때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는 개성을 억압해야 수업에 전념하기 쉬운 우리나라의 방식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는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요즘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행위라기보단,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정치발언에 대해서는 입도 뺏기지 못하며, 교재선택, 교육내용 또한 외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교사들은 이미 권리를 잃었으며 인권 침해행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는다 생각하는 주범의 1,2,3 순위에서 학생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학생들에 앞서 높은 지위에 사람들로부터 구속받으니 교사들은 학생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사의 기본권리가 추구된다면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방법과 안목을 넓혀갈 것이고, 학생들 또한 개방적이며 새로운 방식의 교사에게 마음을 열어갈 것이다. 권위가 집중되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사이가 존중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교육에 목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입시에 억압된 계산적인 지옥이라 생각했던 학교를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중립이라는 감옥,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

-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송현고 2학년 김상은

1. 쪽수의 힘, 사람의 힘

사람이 집회를 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우선 집회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사전에서 집회란 '여러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집회가 이렇게 특정 집단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 사람이 말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어 말할 때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영향력있는 사람 한 명이 TV에 나와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광고를 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회의 의미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여 세상에 자신의 주장을 알린다는 데에 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를 보여주면서 말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역사 속의 수많은 운동이나 혁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변화는 한 사람의 몇 마디 말이 아닌, 같은 의견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서 찾아온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집회를 마뜩찮게 보는 이유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들은 집회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움직임이라 왜곡시켜 말한다. 또, 실제로 그 말에 동의하면서 집회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된 집회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집회의 목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것이다. 모든 협상에는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소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2. 금지되는 것은 집회인가, 자유인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만들어졌고 실행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가 주어진 학생들에 의해 학교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과정에서 반대가 가장 심했던 항목은 '학생의 집회 자유'였다. 학생들이 '모여서 외치는 행동'에 대한 규제는 매우 이중적이다. 학교나 정부, 사회에 불만을 표하고 목소리를 내는 학내 집회나 선도부가 진행하는 교문 앞의 캠페인, 월드컵 거리 응원 등 모두 같은 집회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학교가 학내 집회를 대하는 태도는 나머지 둘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어째서 학내 집회는 '학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나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일'로 간주되고 규제를 하면서 다른 두가지 경우의 집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 이런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개인의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도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 학교가 금지하고자하는 것은 집회나 집단 행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 학교에 의문을 품은 행동, 자기 의견을 갖는 행동을 포함해 여론을 형성하고 그 뜻을 표출하는 법을 찾는 행동을 불편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홀어놓으면서 요즘 학생들의 개인주의를 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3. 합리적 절차와 감정적 집단행동

학생들의 학내 집회는 그리 흔하게 열리지도 않지만 만약 열린다 해도 학교는 그리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어째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감정적(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하나며 규제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가 말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곧 학생회를 통한 건의 절차이며, 그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학생회에 건의한 안건들은 대부분 지도교사들에 의해 간섭되고 검열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지키라는 말과 참고 견디라는 말은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점은, '합리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때 기다리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이며, 감정에 충실한 것이 가장 진실을 잘 드러내는 것임에도 어째서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고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된다면 굳이 집회를 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째서 집회라는 행위에는 초점을 맞추고 집회가 일어나게 된 현실에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일까. 진정한 참여가 가로막혀 있고, 듣는 시늉만 보이는 어른들의 위선에 지친 학생들이 직접 변화를 이끌어내려한다는 의미를 지닌 집회가 정말 '비합리적 절차'이며 '감정적(극단적)인 집단행동'일 뿐일까.

4. 정치는 학생을 망치나, 살리나?

바로 엇그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선거권은 성인들에게만 주어지지만, 후보자들이 건 공약에 반드시 교육에 관련된 항목이 하나쯤은 있을 만큼 학생들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선거날은 곧 노는 날이다. 학생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무조건 공부에만 신경쓰는 것이 옳은 일일까.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참석이나 허가없는 동아리 운영, 정치색을 띤 행동, 학교 밖 단체 활동 등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정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말 학생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위험한 일일까.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입시문제나 국회의원을 뽑는 일, 교육감, 대통령을 뽑는 일은 모두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학생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 집회를 열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학생에게 무지를 강요하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직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어리고 더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은 '정치 왕따'의 신세를 당한다.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말은 곧 그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인 학교가 학생이라는 시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인격과 자유가 잘 보장된다는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선거 가능 연령이 17-18세로 낮은 편이다. 학생이 정치적 권리를 보장 받아야 사회적으로도 더 대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예는 학생들이 외부 세력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참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관광을 보내 준 후보를 찍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체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 않는가. 학생이 정치에 이용당할까봐 걱정이 된다면 오히려 정치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중립'이라는 감옥

학교란 정치적 중립의 성질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하거나 혹은 그런 언급을 학생들에게 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배우고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치색을 입힐 수 있느냐며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모든 생각과 행위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만큼 학교의 교과서, 입시 정책, 교복과 두발 규정에도 정치적 입장이 중립상태일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모든 규정에는 학생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라는 말 자체도 어떤 정치적 입장을 담고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되고 교실안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정치권력이 정해 준 교육 방침을 잡자코 따르라는 말로 사용되게 된다.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은 사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학생들은 결국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6. 우리, 집회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학생집회라는 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낯선 개념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학생이던 성인이던) 그리 고운 눈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노조들이 집회와 시위를 할 때 시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고 불편을 감수한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회란 그저 시끄럽고 귀찮은 소란이라는 이미지일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자라는 학생들이 과연 커서 정치에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때 제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과거,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일본에게 3.1운동을 통해서 매운 맛을 보여준 유관순 열사와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을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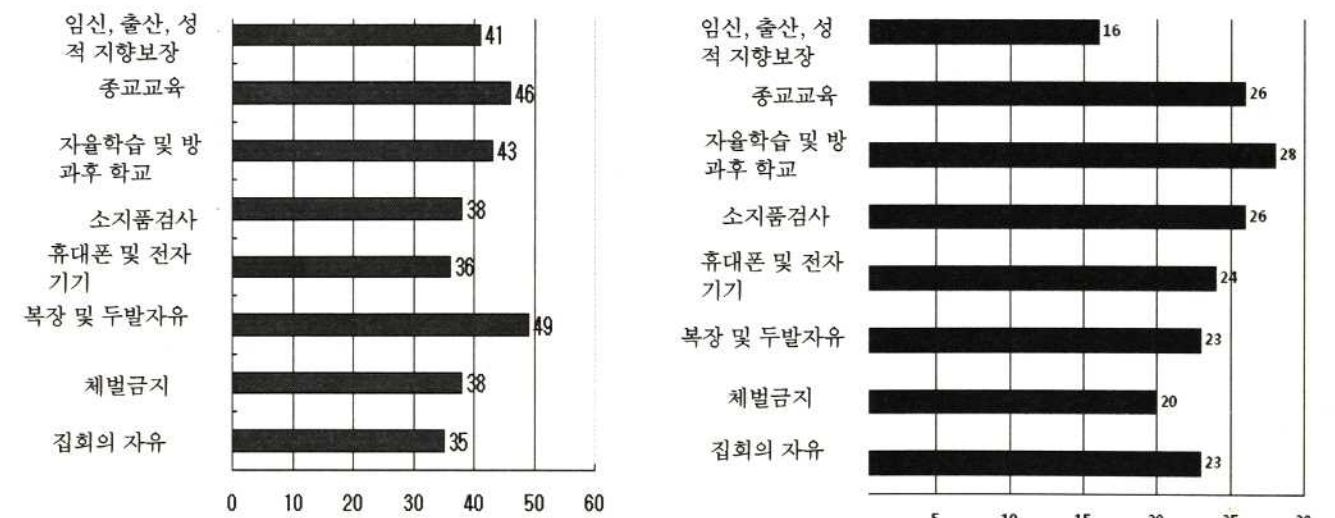
었던 11월 3일의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주최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 4.19혁명과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 역시 고등학생의 시위가 도화선이 되었다. 1989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교사들이 대량 해직되었을 때 부당함을 외치며 집회를 연 것도,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두 여중생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도,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촛불을 들고 일어난 것도 학생들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로 볼 때,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매년 잘못된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거나 연금제도같은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를 연다. 학교 안에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치가 무엇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학생을 망치는 무서운일이며 집회와 정치활동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

+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참 흥미롭다.

2012년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조사는 부산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다.(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37명, '모르고 있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29명이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관심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보인다.) 또,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 설문조사는 부산에서 거주중인 교육관련직 조사자(성인)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의 설문조사 그래프(좌)와 성인(교육관련직 종사자)의 설문조사 그래프(우)>



그래프 및 자료는 블로그를 참고하였음을 밝힘

위 표를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학생들과 성인(교육관련직)들의 의견차를 실감할 수 있는데, 내가 씩씩하게 봤던 점은 '집회의 자유'라는 항목이다. 학생들이 성인들에 비해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아직 집회를 열 정도로 이슈거리를 찾는 나이는 아니라고 언급하며 굳이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가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정치와 집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를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만, 과연 학생 스스로가 집회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낮추는 위축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학생의 인권은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집회의 자유'라는 항목이 학생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학생스스로의 관심과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접속 금지, 발신 금지

- 휴대전화와 함께 추방되는 것들

송현고 1학년 배은혜

p. 120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는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다.',
'어떤 경우든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휴대전화.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휴대전화이지만,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선생님으로부터 사용금지, 또는 압수를 당할 수 있다. 물론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놀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p. 128 나와 있는 '개인에 따라 지구력도 다르고 그 날 그 날 컨디션도 다르고 관심 있는 과목도 다르기 마련인데 모두가 수업시간 내내 한 눈을 팔지 않는다는 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모든 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에 잠깐 딴 짓을 할 수 있다. 이 속에 휴대전화 사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휴대전화를 압수한다고 해서 딴 짓을 그만들까? 수업 분위기가 좋아질까? 아마 '그렇다'고 바로 대답하지는 못 할 것이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학생보다는 잡담이나 그 외 등등으로 경고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 더 많기 때문에 휴대폰 압수, 또는 사용금지가 수업분위기를 더 좋게 만든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의 '놀이'의 용도가 아닌 '정보 수집'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의 문제의 근본이 휴대전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를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압수하는 것이 수업시간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다고 생각한다.

p. 132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꺼리는 또다른 이유는 학교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데 대한 두려움일지 모른다.'

한번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피해를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일어났었다. 이러한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상황과 학생인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심으로 좋지만은 않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휴대전화를 꺼려하는 것이라면, 휴대전화를 꺼려해서 문제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인권뿐만이 아닌 학교에도 더욱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송현고 2학년 김지윤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을 문제. '규칙이니깐 당연히 따라야 한다.' 과연 규칙이니깐 당연히 따라야 할까? 학교 교칙도 엄연히 학교에서 정해 놓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칙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

법치주의란 '명확하게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들어진 교칙 또한 이러할까? 명확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을까? 법치주의는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이념이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민주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라는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칙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을까? 과연 정해진 교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에는 적절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조약이다. 한국 정부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 또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G20의장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삼성, K-POP 등으로 알려진 한국이 UN이라는 국제조약에 서명을 했다면서 실제로는? 표현? 권리? 헌법? 웃기지마라. 이 협약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학교에서는 눈엣가시일 뿐이다.

학교에서 법치주의가 남아있다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시되면서 교칙만이 학생 인권 위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에 발표된 국회 교육법 개정안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무력화를 암시하면서 학교장이 교육감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이 의미는 두발, 복장 제한 조항을 학교장이 학칙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측에서는 학생 규제도 가능해졌고 체벌 또한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 복장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고 한다.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장식물인 셈이다.

생각해봐라. 만약 이 초중고교육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인권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 뻔한 결과물이? 학교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도 우리의 의견을 말할 곳은 사라질 것이다. 몽둥이를 들고 수업하는 선생님, 아침 교문에서 이것 저것 꼬투리를 잡고 벌점을 주면서 혼내는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가.

두발 자유화가 학교의 질서를 흐리고 다른 학생들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한 사례가 많다. 체벌을 안한다해서 선생님의 교권이나 교실 분위기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사례도 많다. 만약 실제로도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학교의 질서는 부실하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는 이거다. 우리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을 정할 수 있는 학교. 우리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학교.

성북구에서는 초등학생 30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 1기 어린이 구정참여단을 구성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기본권 가운데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의견을 직접 청취해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라 한다. 내년에는 어린이뿐만 아닌 청소년도 포함하여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교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닌, 왜 그 학생이 교칙을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원인분석을 하고 교칙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또한 교칙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을 내놓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들이 있어야 우리 인권을 침해 받지 않는 교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 - 체벌과 폭력 사이〉 1학년 박민국

맞아야 하는 학생들, 때려야 사는 선생님들 모두 습관이 되어있다. 작년에 학생인권조례를 통과한 체벌금지를 비롯해서 지금도 수군거리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도 체벌을 금지하는 탓에 시위를 벌였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 학생을 때리는 것에 습관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서울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습관적으로 때려서 죽게 만든 사건이 나온다. 지금 현실에도 우리 학생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중략)... 체벌은 옳지 않다. 책에서도 학교를 감옥으로 비유하고, 교복을 죄수복으로 비유하는 건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학생과 학생이 서로 의견만 잘 존중하면 싸우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선생님이 매를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점만 나아져도 인권은 조금이나마 지켜진다고 나는 믿는다.

〈청소년 연애의 슬픈 현실 - 사랑은 아무나 하나?〉 2학년 이수연

p. 213

어렵사리 연애를 시작한 청소년들은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아들의 문자를 훑쳐본 학부모의 '제보'로 애인인 여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간 경우도 있고, 자식의 연애를 반대하는 학부모의 항의로 1학년 때부터 남녀 합반이었던 고등학교가 삼년 내내 남녀 분반하는 제도로 바뀌기도 했다. 인간 사이에 싹트는 정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개가 가우뚱거리겠지만, 연애를 아예 학칙으로 금지한 학교들도 여럿이다. 서로 5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하면벌점을 주거나, 키스하다 세 번 걸리면 정학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들키지 않고 연애하거나, 알아서 안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은 신경 끄고 나의 길을 가거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당당한 사랑, 인정받는 연애를 하긴 쉽지 않다.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연애를 이토록 달갑지 않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멋부리는 데에만 신경 쓰고 공부는 안한다. 잠을 줄여도 인서울이 힘든데 연애라니 등등...)

연애를 해도 자기관리에 문제 없다는 걸 인정받아야 비로소 사랑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두발의 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2학년 양혜원

...(중략)... 책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에 난 털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 자존, 다짐,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의 털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열망, 인격, 존중을 받고 싶은 열망인 것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두발규정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다. 선생님들은 말한다. '모범적인 애들은 두발규정을 좀 벗어나도 괜찮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큰제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한다. '두발자유인 학교는 분위기가 산만하고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아.' 두발자유와 면학 분위기는 또 무슨 관계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학생들에게 '멋'이라는 것은 교육에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모범생들은 규정을 좀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두발규정은 차별이다.

학생들이 두발 자유에 유난히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멋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표출일 수도 있다. 반대로 두발규정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이나 파마를 해야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머리를 기르고 염색과 파마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두발과 교복 변형이 자유로워서 불편을 느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써 기른 내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잘라야했던 2008년 3월 1일이 생각난다. 그 이후로 나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다. 나는 두발규정과 학교분위기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도 다 자유롭지만 그렇다고해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아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의 두발자유에 대한 집착은 멋 때문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성숙의 감옥을 벗는 다는 것〉 2학년 홍유진

"나이에 따라 성숙은 따라오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당연히 예스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뇌물 수수나 비리 혐의로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사장님,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을 구타하는 가장 등 이들의 행동은 분명한 미성숙한 행동들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한 질문의 답은 예스가 성립될 수 없다. 분명히 나이와 성숙도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사회가 제시하는 성숙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윗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르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자기 의견을 내기보다 대세에 묻혀가는 것, 굴욕적인 순간에 꺾소리 않고 참아내는 것이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성숙하다는 기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진짜 성숙한 청소년 또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또 청소년이 성숙할 기회를 학교에서 빼앗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렸을때부터 교실청소를 벌이나 의무로 주어서 자율성의 의미를 갖추지 못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갓 스무살이 된 새내기 성인들은 하소연한다. 여전히 엄마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성숙해지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도 더 이상 부모님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송현고등학교 2학년 원가영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지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치'의 '정'자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공부나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 벌써 6일이 지났고요.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와 성적처리로 분주합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후끈한 열기도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담담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남의 일이라고 잠시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망각이라는 두 글자는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크게 작용합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기억해야 할 역사를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누구라는 것만 기억할 뿐, 그들이 했던 약속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 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이 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12월 21일, 또 한 명의 한진 노동자가 망각 속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 노조 사수하라, 손해 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 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직 어떻게 지켜낸 민주 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세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

”
- 한진 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유서내용 중

쌍용, 한진, 현대, 강정, 밀양, 고리의 문제는 선거 전에도, 선거 중에도, 선거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출발하는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자글자글해진 손을 이끌고 처음으로 집회와 농성을 해야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5년 8개월 동안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매달려왔던 강정마을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끔찍했던 용산 참사에서 희생당해야만 했던 사람들, 철탑과 크레인 위에서,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권리를 주장했던 많은 노동자들을... 우리는 그동안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는 길, 앙상하게 뼈대만 버티고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영하 10도 아래를 웃도는 날씨에도 목장갑을 끼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세운 뼈대는 한 건물의 이름으로, 자본가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죠. 사회적 약자도 결국 '자본'이라는 이름 아래 놀아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의 합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짓밟아버리는 사회에서 오늘도 그들은 매서운 한파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숨 쉬고 있는 이곳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길 원하는 겁니다.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가장이라는 이름때문에, '나'뿐만이 아닌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탑 따위로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파업'과 '시위'라던지, '집회', '농성', '운동'에 관한 인식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며, 오히려 번거롭게 되었다는 입장이지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결국 큰 자본 안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일요. 청소년인 우리들도 훗날에는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할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할당량의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가정을 꾸려가는 부모님도 '노동자' 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파업'과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가 일어났을 경우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사람도, 결국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고리가 자신과 연결되어있음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망각해왔고, 망각을 부추겨 기어코 사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한파의 연속. 누군가 얼어 죽고, 누군가 굶어 죽고, 누군가 권리를 외치고 죽어갔던 날들. 그것이 단지 사건으로 처리될 뿐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픈 밤입니다. 한진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처럼 삶이 이벤트가 되어 사건, 사고로만 기억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한파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눈도, 추위도, 세밀도, 새해도 공평하지 않은 대한민국.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회인 것을. 이 땅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남영동 1985

1

이번 에듀클러스터 시간에는 영화, '남영동 1985'를 보았다. '부러진 화살'로 소재 자체는 그리 대중적인 영화가 아님에도, 340만이라는 적지않은 규모의 관객을 끌어들이 영화계의 돌직구, 정지영 감독의 작품이었다. 감독의 이전 필모그래피를 살펴봐도 대강 그의 영화 스타일을 알겠지만 사실 제목만 봐도 이 영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영동'과 '1985'라는 두 단어의 조합, 개별적인 것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두단어의 미묘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제목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쩐지 나에게 '남영동 1985'라는 제목은, 단지 영화의 배경인 '그 때'와 '그 곳'의 이미지를 묘사할 뿐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작과 끝을 예상하게 하면서 그 묵직한 존재감을 뽐어내는 것처럼 거대하게 보였다. 아마 전날 남영동의 인권센터를 미리 다녀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동아리 활동으로 방문했던 그 곳은 하루가 지난 후에도 머리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진득한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영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그 곳은, 물론 지금이야 보수공사를 더해 인권센터라는 교육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장소였다. 이상한 건 나는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음에도, 처음 건물의 걸모습만 봤을 땐 특별히 형무소같은 느낌을 주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경건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음침함, 세계적인 건축가 김수근 선

생이 사람의 심리를 극도의 공포심으로 몰아가기 위해 고심을 하며 지었다는 형무소 특유의 그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죄 없는 사람까지 움츠러들게 할 정도로 끔찍이 압도적이었다. 30년 전, 사람들에게 알려져선 안되는 비밀스러운 '일'을 몰래 처리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은 내부와 건물의 예술적인 외관 사이의 괴리는 그 날의 우중충하고 쌀쌀했던 날씨와 기괴하게 어우러져서, 나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은 충동이 일었다. 그리고 그 기분은 다음 날 영화 제목의 울룩불룩한 그래픽을 보면서 스물스물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전 날 보았던 형무소 계단의 날카로운 발소리, 쇠물의 차가움, 창밖의 햇살에 가려진 음영같은 것이 나에게도 자연스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2

영화안의 사건들은 이제 겨우 열여덟 남짓인 우리에게겐 이질적이지만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다. 한국사를 한 번쯤 공부해 본 학생이라면 교과서의 귀퉁이에 찝막하게 실렸을지도 모를 영화의 배경에 느리 낮선 느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독재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한편, '옳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독점한 세력을 바로잡자'고 외치는 민주화 운동에는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은 이어졌다. 결국 군부에 의한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마침내 끝을 보인 18년 간의 독재에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전두환이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12.12사태를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쇠락의 길로 이끌어질 순간이었다. 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국민들의 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5월 18일,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폭동', 혹은 '빨갱이'로 몰며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런 비밀스러운 사건들은 정부에 의해 쉬쉬되는 듯 했지만 조용히 퍼져나가 대학생들과 같은 지식인계층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게 되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시위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지만 전두환은 그 요구들을 무시했고 그런 와중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 근태 사건', '박종철 사건' 등 여러 고문피해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이렇게 아직 젊은 대

학생들이 특별한 명목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되고 고문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반복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더 커졌고, 그 전까지는 대학생들의 열기 넘치는 시위를 귀찮게 여겼던 어른들과 종교단체의 큰 스님과 목사, 신부님들까지 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전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전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영화는 바로 이 시기의, 소위 '김근태 사건'으로 불리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3

영화는 김근태 의원의 책 '남영동'을 바탕으로, 당시 고문실 안에서 행해졌던 온갖 잔인한 고문들과 그 밖의 자살한 에피소드들을 극화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야말로 끔찍한 고문장면들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으로 꽉꽉 채워진 2시간이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영지우질 못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분노와 슬픔과 찻찻함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고 꼭 내가 고문을 받은 것처럼 수치스러웠다.

실은 이런 종류의 영화를 즐겨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장르가 단순히 오락과 재미, 교육적인 것, 완전히 예술적이거나 혹은 완전히 대중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남영동 1985'는 그런 영화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 내 제된 기억이 있고 만일 그것이 밝혀져야할 진실이라면 그 기억을 되도록 많은 사람의 머리에 심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영화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역사에 대해 빠삭한 편은 아니어도 관심은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년후에야 태어났을 내가, 영화에 절절히 공감할 만한 거리는 사실 별로 없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주인공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고문관, 독재정치에 대한 분노와 죄가 없음에도 인권이 유린당해야만 하는 억울함, 불의와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지식인으로서의 수치같은 것들은 나는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나는 이미 전(前) 시대가 이루어 놓은 새 시대에 발을 딛고 있고 어쩌면



진흙탕이었을 지도 모를 바닥이야 어쨌건, 나에게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과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으니까. 다만, 그 땅을 밟아가며 현재까지 살아온 어른들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아픈 과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당연히도 내가 옛날의 일들을 궁금해 할 리 없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그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민주주의나 존엄성, 권리같은 어려운 단어들, 혹은 폭력과 투쟁, 사상대립같은 날카로운 단어들은 무감했으며 익숙치 않을 수 밖에 없었고 뜨거웠을 그 때의 일들이 역사의 일부로 전락해가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새도 없이 새로운 역사에 밀려 먼지가 쌓여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거다.

그렇지만 영화는 이상하게도 나를 끌어오르게 했다. 내가 특히나 끌어올랐던 부분은 영화의 마지막, 고문 경험자들의 인터뷰와 김근태 의원이 고문 후유증인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문장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절대 몰라서도, 모른 척 해서도 안된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역할이다. 우리 살아 있으니까. 영화를 보고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4

우리가 역사가 남긴 유언에 귀를 기울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고 역사를 잊는 순간, 우리의 두 손은 텅 비게 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과거보다는 나아야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은 그 과거를 '현재'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우리는 간혹 잊기도 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어디선가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상처라는 것은 결국 몸에 남는 기억의 상흔이다. 사람의 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만들어내는 데 온 몸의 시스템을 풀 가동시킨다. 1980년대로부터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받은 고통은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그 때의 암울했던 상황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상처를 찾는다. 상처는 마치 하나의 좌표처럼 기억속을 헤집으며 평생토록 숨겨둔 어두운 방의 스위치를 기어이 켜게 만든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의무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흉터가 없다.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는 그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건, 글썄.

나는 '남영동 1985'야말로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 흉터같은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과거의 잊혀진 기억들을 끌어내고 흉터의 좌표를 찾게끔 잔뜩 구겨진 지도를 쪽쪽 편다. 관객들로 하여금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감에 묶이도록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책임감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적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일궈놓은 땅에 뻘뻘스럽게 집을 짓고산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꼈던 것이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기를. 특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자유와 권리들이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너지고 짓밟혀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저 특정 다수의, 막연한 역사의 일부라고만 느껴지는 사람들은.

송현고 2학년 김상은

영화를 보고나서, '남영동 1985'에 대한 기사를 찾던 중, 주연을 맡았던 박원상 배우의 인터뷰내용이 좀 기억에 남았다. '불편한 기억을 전승하는 것이 기성 세대의 역할'이라는 말을 기사헤드로 뽑았더라.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1980년대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새 시대를 뜻하는 고유명사처럼 느껴졌을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민주주의니 자유니 투쟁이니 하는 단어들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너무 새로워서 오히려 거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당시 기득권층에 반발했던 신세대들이 세월이 흘러 이젠 당신들이 기성세대의 역할을 맡게된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결국 '1985년'이라는 말도 새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동시에 이미 구시대로 남게되는 모순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런 모순이 그 시대를 더욱 미스테리하고 오히려 극적으로 만드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프랑스의 풍네프다리처럼 말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시대와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제작은, 거의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록 그 극적인 이야기들이 '불편한 기억'일지라도 젊은이들은 기성 세대들의 전승을 기꺼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흐른다'는 노랫말처럼 살아있는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심지어는 사람들도. 우리는 멈출 수 없기때문에 나아간다. 역사를 등에 메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이런 영화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일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영화속 인권이야기

파수꾼

송현고 2학년 김지윤

어떠한 인권이 관련이 있을까?..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걸까..? 영화를 보기 전 영화 제목만 보고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주제를 짐작하는데, '파수꾼'은 제목만으로 감을 잡을 수 없는 영화였다. 그래서 어떤 줄거리 일까,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하고 더 주의깊게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기 전,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부산 국제 영화제 뉴커런츠 부분을 수상한 점,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한국 영화가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것은 이 영화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보았다는 작품이었다는 것 그리고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 영화를 주목할 만큼 작품성, 표현력 등 이 작품의 퀄리티 또한 높았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30대 초반의, 다른 감독들에 비해 어린 나이인 윤성현 감독이 5000만원이라는 저예산으로 만든 이 작품이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었다는 것은 충분히 내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영화였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써 넣은 것이지만 영화가 3월 3일에 개봉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왜 감독은 3월 3일에 개봉을 하였을까? 3월 3일은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학생인 점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봄, 새 학기, 새 출발, 새 시작...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연령대와 더불어 3월 3일에 개봉했다는 것은 감독이 학생들에게 무언가 의미를 담은 말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말이다.

영화는 조금 미스터리한 요소를 가미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한 소년의 죽음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를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렸다. 세 친구의 우정과 그 중 한 소년의 죽음. 감독은 이 소년의 죽음에 대해 감정이나 생각들을 넣지 않았다. 디테일한 요소를 빼는 대신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현실적인 요소를 넣어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한 소년에 대한 죽음의 실마리를 살짝 살짝 제공하여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고민을 하게 만든 작품이다.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많이 가졌을 법한 그런 추억을 회상시키며, 이 세 소년의 감정을 미묘하게 그려넣는다. 주인공 기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니 기태가 자살을 택함으로써 하고 싶었던 말, 진심. 쌓이고 쌓이던 그 오해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보이던 기태의 안타까운 눈빛과 애절함이 지금 생각하면 내 가슴 한 편이 답답하고 먹먹해진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방과 후 항상 기찻길에 모여 야구를 하던 세 명의 남학생이 이야기를 이끄는 주동 인물로 나온다. 기태, 회준, 동윤. 어머니의 부재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기태는 외롭기만 하다. 이런 기태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친구. 웃고 울고 같이 떠들 수 있는 친구라는 공간이다. 예쁜 여자애가 고백을 해도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회준을 위해 여자친구도 포기할 만큼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태의 의사표현은 서툴러서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에게도 상처를 주며, 오해는 쌓여만 간다. 기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힘으로, 권력으로, 주먹으로 친구들을 사귄다. 쌓이던 오해는 회준을 향한 구타와 폭력, 모멸로 표출된다. 회준과 기태의 관계가 안좋아지고, 회준에 대한 마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기태, 그리고 기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윤. 기태와 회준 둘 다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으니 동윤과 기태의 갈등도 커져만 간다. 회준은 결국 기태를 피해 전학을 하게 되고, 친구 사이의 관계가 오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기태는 이사를 간 회준에게 찾아가 마지막 손을 내밀지만 이미 상처를 받을대로 받은 회준은 기태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회준을 잃자 동윤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을까.. 기태는 동윤에게 동윤의 여자친구에 관한 안좋은 소문을 말해준다. 때마침 동윤의 여자친구가 큰 사고로 쓰러지면서 동윤은 학교를 자퇴를 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한다. 동윤을 찾아간 기태는 동윤에게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

기태가 죽은 이후의 시점인 현재와 그들이 기태가 친했을 때부터 서로 멀어질 때까지의 시점인 과거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있다. 기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동윤이 기태와 얘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1.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기태가 서투르지만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다가갔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다른 장면들이 많았지만, 이 장면은 내가 실제로 내 상황에서 경험했던 일이었다. 화해를 하고 싶어 먼저 손을 내민다는 자체가 큰 용기이기 때문이다. 기태가 친구들로부터 화해를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한 큰 공감이 되었다.

이 장면은 주먹으로 권력을 알게 된 기태가 자신과 얘기를 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회준을 구타와 폭력으로 대한 그 후, 회준에게 다가가 왜 그러는지 계속 물어오던 장면이다. 얘기하길 꺼려하는 회준은 기태에게 가시같은 말만 하며 기태에게 상처를 준다. "넌 니 주위 애들이 니 꼬봉으로 보이지? 내가 왜 너한테 꼬리 흔들고 있는 줄 알아? 너의 그 알량한 자존심, 학교 다니면 편하니까 뭐 되니깐 그러는거야. 나도 너 친구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너 사과 받아줄 마음 없어. 너때문에 나 다음 주면 전학가. 어차피 다음주면 전학가는데 사과 받아줘서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회준에게 기태는 "우리 그만하자, 이러지 말자"라고 한다. 기태는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몇 번씩 다가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만하자고 이러지 말자고 하지만, 결국 회준은 기태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 장면을 볼 때 기태가 나라는 마음으로 회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난 정말로 상처를 받았다. 남학생들과의 친구 관계가 아닌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우라서 더 인상깊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회준에게 그만하자고 이러지 말자고 했다. 회준은 나를 뿌리쳤다. 난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내가 한 번 겪었던 일이었기에 더 가슴에 와닿았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실제로 친구에게서 이 얘기가 아닌 조금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 기태와 같은 표정, 기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깐.

기태는 전학을 가버린 회준에게 다시 한 번 찾아간다. 기태는 노력했다. 저번에 학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소리지르지 않고, 욕을 하지않았다. 웃으면서 평소처럼 친한 회준을 바라보면서 회준을 대했다. 자기가 정말 아끼는 야구공을 선물로 주면서. 회준은 마지막까지도 기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울해진다. 소중한 친했던 친구를 잃은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기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안다. 그러나 난 기태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 나는 이런 관계가 오면 몇 번 고민을 하고 바로 다가가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진심을 알려주고 노력한다. 분명 기태도 노력을 했지만 회준과 기태는 의사소통이 안됐다. 기태가 회준을 집단구타했기에 회준의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겠지만, 의사소통이 안되어 오해가 쌓여만 갔고 결국에는 친구를 잃었다. 이 부분에서 기태에게 약간의 내 방식을 알려주었다면 기태와 회준의 관계는 개선이 되었을까..?

2. 제목 '파수꾼'의 의미는 무엇일까.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 : 1.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2. 어떤 일을 한 눈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감독은 '파수꾼'이라는 제목이 영화의 내용과 반어적인 성격을 띠다고 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뜻하기 위해 파수꾼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감독의 의도를 반영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책 '호밀밭의 파수꾼'의 의미를 살짝 따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보면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어떤 이유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동일한 상황에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라고 나와있다. 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죽은 남동생 엘리와 여동생 피비처럼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는 사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감독이 말한 '진실을 추구하는 자'를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입시켜보면 등장인물들이 진실을 추구하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지키려고 한 것일까? 자기 자

신...? 친구와의 관계...? 파수꾼은 자기가 지키는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만약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영화에서는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과연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주인공 '기태'의 죽음은 누구 탓일까.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나열해 보자면 기태, 희준, 동윤, 기태 아버지, 기태의 주변 친구들, 학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안돼 오해가 쌓이고 쌓인 일을 가지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보자면 모두의 잘못이다.

기태는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콤플렉스가 있고,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 주먹으로 권력을 얻는 '짱'이다. 감정 표현이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다가가려는 노력도 많이 보인 인물이다. 희준이는 의사소통을 거부한다. 기태가 몇 번씩 이야기를 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회피한다. 기태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안계시고 경제적인 가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 기태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적다. 기태가 죽고 나서 기태의 여러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지만, 이미 기태는 죽고난 후였다. 기태의 주변 친구들은 희준이와 동윤이와는 그닥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해서 기태와도 친하지 않다. 권력 있는 기태에게 빌붙어서 기태에게 자존심을 짓밟혀 가며 옆에 붙어있는 아이들이다. 기태는 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다고해서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주변 친구들 또한 기태에게 가식적으로 대할 뿐 정말 친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교의 무관심. 기태가 죽었음에도 기태 아버지가 찾아가자 너무도 태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잠시 나온다. 기태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은 기태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기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담임선생님은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대표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잘못된 게 다 하나씩 보인다. 그러나 이걸 결과물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의사소통이 안되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서로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만 신경쓰기 바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결론은 이거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말로 하는 거 정말 쉽다. 사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대두되면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영화를 보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인다. 오해가 많이 쌓였는데 말로 같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소통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어렵다. 오해가 많이 쌓인 서먹하고 커져가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먼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4. 영화와 관련해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

영화는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냈다. 아마 남중이나 남고에서도 영화 속 일이 실제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도 모른다. 남녀공학에서는 쉽게 볼 수는 없겠지만 남중이나 남고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서열관계가 존재한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 영화에서는 친구관계의 우정을 그려넣었지만 그 속에 있는 친구관계의 계급 또한 그려넣었다. 희준은 기태와 동윤이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캐릭터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지만, 희준이 기태와 동윤이보다 아래에 있는 관계로 볼 수 있었다. 친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서열 관계가 드러난 순간부터 기태와 희준의 친구 관계는 깨지게 되었다. 기태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기태의 서투른 표현방법은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기태도 상처를 입었다. 흔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교내 폭력, 자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있다.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다.

5. 영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 폭력이 요즘 점점 크게 이슈화되고, 발생사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학교 폭력 대책으로 생기부기록이라는 서류나 결과물로써 아이들을 협박한다고해도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그만두는가? 사건이 터지기 전, 생기부를 작성하기 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는 게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요즘 교과부나 학교를 보면 여러 가지 안전들을 내놓으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학교 폭력이 일어나야 취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이전에 취해야 할 안전들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 결과물만 가지고 이리저리 회피하기 마련이다.

가해 학생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는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법안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가해 학생들 관련된 것이지 피해 학생들의 입장이나 배려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 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에게 보통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학교에서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는지 같은 간단한 얘기라도 하며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 애초부터 일어나면 안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 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그리고 20년간의 수요일

윤미향 정대협 대표

할머니에게 명예를!

이 글은 윤미향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장호진 선생님께서 메모,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할머니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운동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할머니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970-80년대의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그 당시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수요시위가 시작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조롱을 받아야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지요. 부끄럽지도 않느냐, 몸을 더럽힌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거리에 나와 있느냐 조용히 숨어살아라...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의 손가락질이 준 상처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밝힌 할머니들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기 이전에,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임을 타인을 통해 확인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그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라 낙인찍고 수십 년을 숨어살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밝힌 순간 벌어진 일들을... 그들의 심정을...

저는 진실이 왜곡되고, 할머니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노'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로 서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그들의 반응은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수치심'을 만드는 것이지요. '화양년'의 역사를 알고 계시지요? 정치적 상황에 의해 나라가 팔아버린 그녀들 '환향녀'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가여운 희생자였던 여성들을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책임은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책임은 바로 이 사회의 구성원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대협에서 일하는 이유는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폭력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 악성 댓글 문화를 들 수 있겠지요.) 할머니들이 연로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매년 수요시위에 참가하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나오는 거야'라고. 우리 세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정대협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눈에 우리 세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아픔이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도 되풀이 되는 악몽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본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근대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을 유린하고 아이마저 버리고 떠나는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만나셨지요?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에 의해 유린되었습니까? 해방 후 조선에 들어온 미군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여성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떠나버린 것도 놀랍도록 같은 상황입니다. 미군이 버리고 간 아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이슈가 시작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위안부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1931-45년, 즉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미 자궁의 생산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정신대가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본 군인 100명대 1명, 29명대 1명이라는 등의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려 20여만명(일본은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의 정신대 여성들 중 80%가 조선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14-15년 동안 하루밤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는 동안 자궁의 생산 기능은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성병에 걸린 그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며 심지어 거친 돼지 껍질로 가려운 곳은 문지르거나, 수은을 쓰이며 살을 녹여내는 경악스러운 민간처방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한 일본군 장교는 '조선 여성은 천황의 하사품, 위생적인 공중변소'라고 말합니다.

한 일본 노인이 어린 시절 '조센삐', '조센뻘'하며 철모르고 놀리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조선 여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그 단어를 입에 올리던 사실에 대해서지요. 최근 유명 개그맨이 위안부를 창녀에 비유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창녀'라는 단어를 생각해봅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그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함부로 비하할 수 없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이처럼 우리 삶 속의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미군 포로가 되어,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십 년이 걸려서야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대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들 중 상당수가 '나혼자만 살아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서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급력은 엄청나서 아시아 전반과 호주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정신대 여성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거짓에 대항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진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윤정옥' 할머

니는 전쟁 당시 사회를 읽는 눈을 가지고 그나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일자리를 준다, 공부를 시켜준다, 간호부로 간다는 등 거짓으로 유인하여 여성들을 위안부로 내몰았을 때, 윤정옥 할머니는 진실을 눈치채고 조선을 떠나 도망칩니다. 그런데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들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지만 정작 희생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그리하여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고, 기고문을 쓰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때 여성 운동가들과 만나 그 파급력이 커지게 됩니다. 윤정옥 할머니의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 연구가 바로 '정대협'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1991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는 아주 소수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 그러나 이러한 수요시위가 100회, 200회... 500회가 된 지금은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시위에 찾아온 이들은 할머니에게 말하곤 합니다. 살아남아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머니들과 평화 운동가가 만나 국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양심 있는 이들이 할머니들을 지지하며 평화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바로 할머니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운동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게 배상금을 받으면 전쟁으로 고통 받는 콩고 여성들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콩고는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짓밟히고 고통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받는 그 날 까지 할머니의 약속은 '나비기금'이 지켜줄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정성,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이미 수천만 원의 나비기금이 모여 콩고 여성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많은 수백만원 까지도 할머니들이 기부해주셨습니다.)

나비기금은 전쟁으로 고통 받는 여성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나비기금의 '나비'는 바로 할머니들입니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기 위한 준비기간이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작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삶은 짧지요.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습니다. 생애의 가장 소중한 날들을 고통과 수치심 속에 침묵하며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60대 이후에서야 '나도 인간이며, 나도 여성이다'라고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수많은 실타래를 벗겨내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운동으로 간혀있는 나비를 날게 합시다!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일상의 폭력에 눈감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그것이 이 사회의 폭력을 고착화시켜버립니다. '나비기금'의 포스터를 보세요. 나비는 보라색, 우리 할머니들입니다. 보라색은 고통, 죽음, 아픔을 극복하고 부활한 고귀한 색깔입니다. 이 나비가 날고 있는 바탕은 노랑색, 바로 우리들입니다. 노랑색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연대를 의미합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노랑나비가 됩시다. 나의 몸을 통해 할머니들이 다시 살아나시도록,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폭력에 눈감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센삐 : 조선창녀



20년간의 수요일

수요집회에 다녀오다

수요집회(=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정기 집회다.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 30여명이 일본 대사관앞에서 첫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개최되어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 일본에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처음만나는 자유의 동아리 부원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번 수요집회에 다녀와 이 전에 책 속에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 수요 집회의 현장감을 생생히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1. 8. 3

유흥지

2011년 8월 3일 제 981회 수요시위에 참여해보았다. 상아랑 수인이랑 지하철을 타고 가서 12시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인파가 점점 몰려들고, 기자분들이 많았다. 이순덕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김순원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전부 6분이 오셨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 그리고 평화 기념비 모금을 하시길래 참여했다. 1000회에 맞추어 세워진다고 하셨다. 참여하면서 같이 소리지르고 외쳤는데 일본 대사관



은 창문을 모두 닫고 블라인드까지 쳐져있었다. 그리고 경찰과 경찰차가 그 주위를 보호하고 있었다. 참여하며 보니 어린 아이들(초등학생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할머니들에게 달아드리고, 중학생들도 나와 말을 하고, 앞에서 할머니들에게 춤을 선보였다.

학교, 단체에서 오신 분들 몇몇이 호명되고 그 외의 분들도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도 동아리들끼리 왔으면 좋았을텐데하며 조금 부러웠다. 참여하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 일본은 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걸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항의하고 요구하면 그제서야 인정을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며 슬금슬금 빠져나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갈수록, 더욱 더 상처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 가시면(증인들 마저 사라지면) 조용해질꺼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과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것 같은데 어째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면해도 소용없다고 어서 빨리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안상아

8월 3일 981회 수요 집회를 다녀왔다. 30분쯤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다.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굳게 닫혀있는 일본 대사관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로 인해 분위기는 왠지 삭막했다. 오늘 시위에는 이순덕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박옥선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김순원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가 계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2. 위안부 진상 규명 3. 일본 국회의 사죄 4. 법적 배상 5. 역사 교과서 기록 6.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이었다. 2003년 7월에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블라인드로 굳게 닫혀있던 일본 대사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굳게 닫혀있다고 그것을 덮을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일인데 비겁하게 피하는 일본이 어이가 없었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리고 보일 텐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일본이 답답했다.

이제 곧 1000회 수요 집회 12월 14일에 평화 기념비가 세워진다. 벌써 집회가 1000회가 다 되었는데 일본은 사죄는 커녕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 시위를 가보니 어린 아이들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꽃을 달아드리고 크게 일본 대사관을 향해 '사죄 하라!'를 외쳤다. 이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를 제대로 알고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오늘 수요 시위에는 외국 기자들도 참여하였다. 계속 무엇을 적고 관심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 많은 외국인들이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위라는 수요 시위!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든 몸을 이끌고 일본의 잘못을 외치고 진실을 위해 노력한 할머니들의 노력의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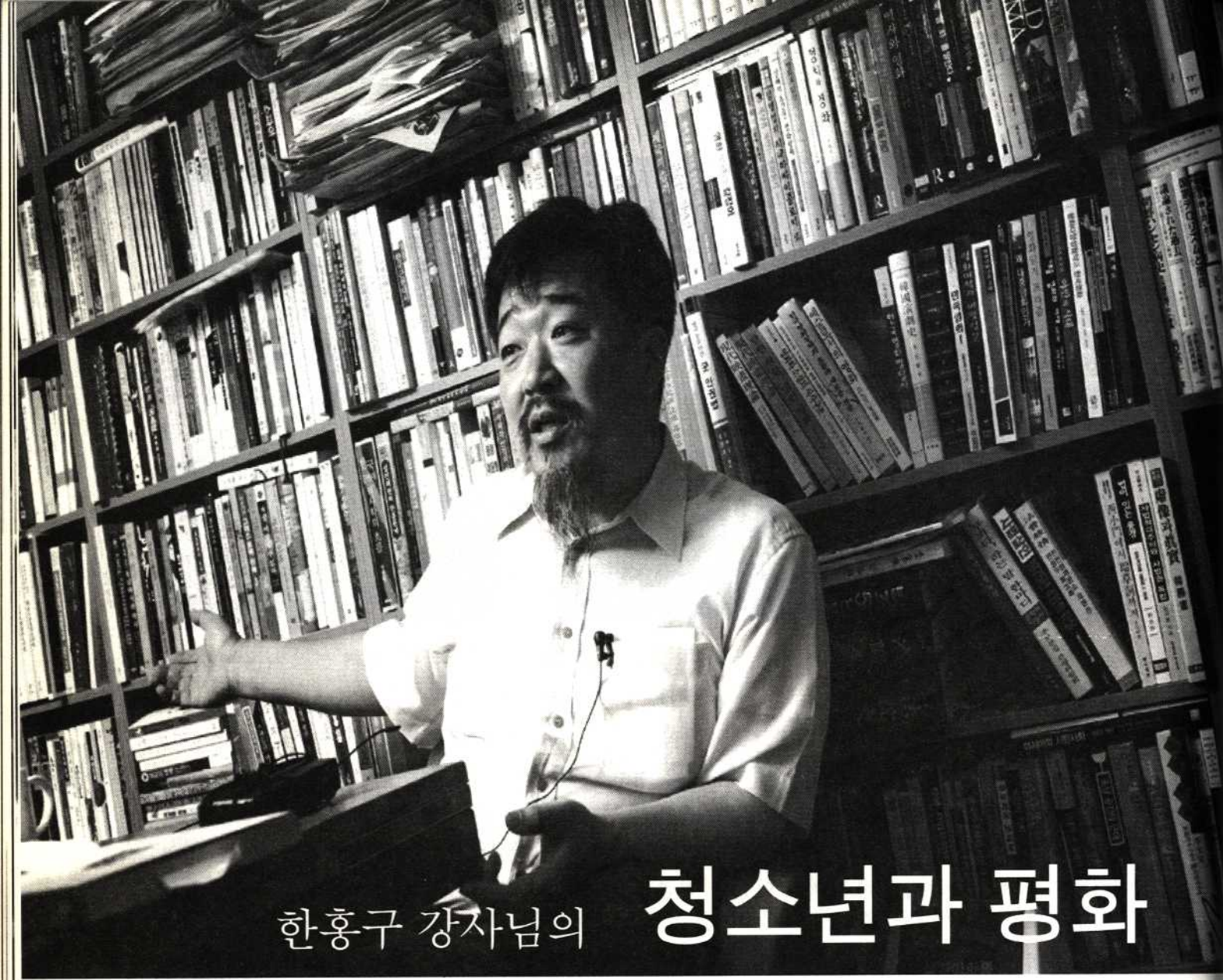
강수인

8월 3일 981회 수요 시위를 다녀왔다. 지하철을 거의 1시간 정도 타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도도 보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도착을 했다. 12시를 조금 넘겼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초등학교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어서 내심 놀라기도 했다. 기자들도 되게 많았는데 외국 기자도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인가보다하고 생각을 했다.

우선 평화기념비 건립을 하는데 동참을 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모금을 하였다. 사람들 속을 헤치고 좀 앞 쪽으로 가보니 일본 대사관이 잘 보였다.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별로 크지 않았고 앞에 경찰들이 서있고 창문을 보니 다 블라인드가 쳐있었다. 블라인드를 보니 진짜 화가났다.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일만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놓는 것 같았다. 일본은 언제까지 블라인드를 쳐놓을까? 블라인드를치고 얘기를 안 듣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아이들이 나와서 할머니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울컥하였다. 할머니들께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광주 중학교에서는 평화선언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다. 중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981번째가 될때까지 '아 빨리 해결되어야 할텐데' 이런 생각만하고 지나간 것이 부끄러웠다. 인명여고 역사 신문 동아리의 발언, 또 성명서 낭독등 여러 가지를 하였다. '배상하라, 사죄하라' 이런 것들을 외칠 때 처음에는 좀 쑥스럽고해서 작게 했는데 나중에는 일본 대사관 안에까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외쳤다. 근데 막상 일본이 배상을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허무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서 이순덕, 김복동, 이옥선, 박옥선, 김순원, 강일출 할머니들을 뵈었는데 다들 정정하신 것 같아 좋았다. 일본은 정신대 분제를 회피하지 말고 빨리 대처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잘못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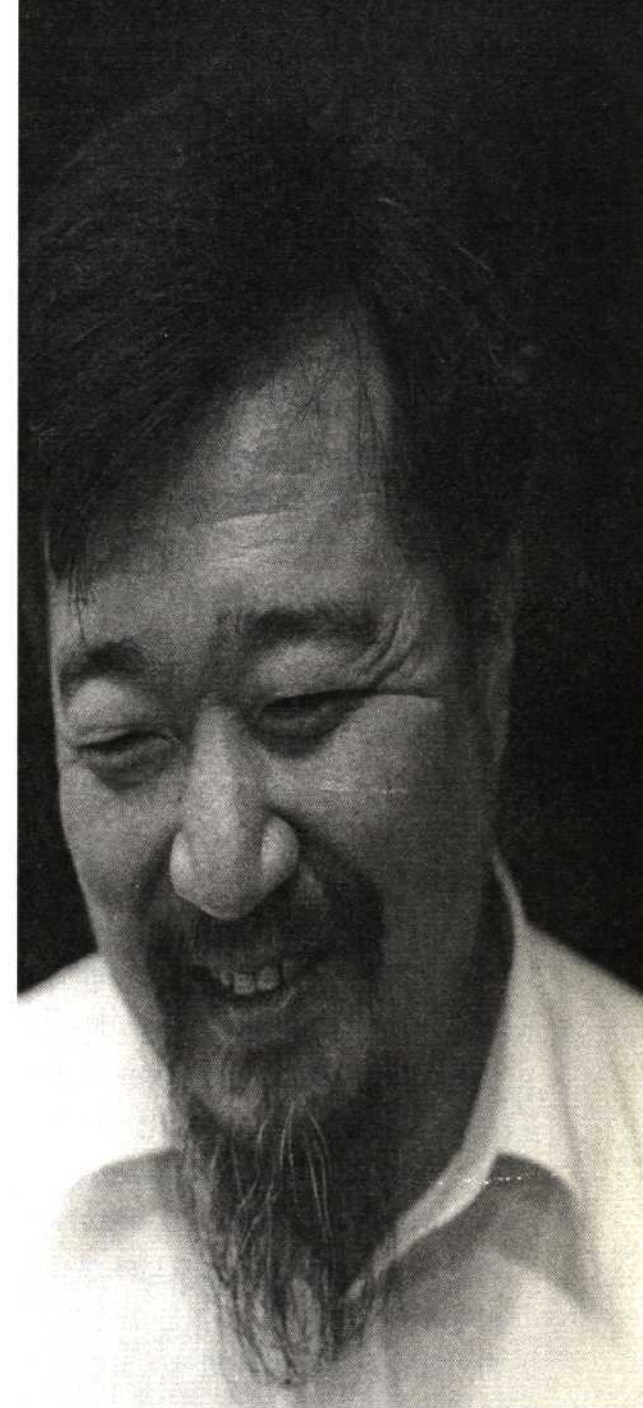


한홍구 장사님의 청소년과 평화

송현고 1학년 배가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평화로워 지기는 했지만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나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 즉, 전쟁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협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안전한 곳일까? 나 역시 아직은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해보아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휴전선을 경계로 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책을 읽는 당시에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역시 경험하지 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을 간다고 해서 약간은 긴장이 되기도 했다. 그곳에 가면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을 책에서 본 것과 달리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전쟁이란 어떤 것이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 싶다.

많은 박물관을 가봤지만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은 가지 않게 되는 것 같다. 기회가 많지도 않았지만 경험해보



지 않아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막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운 느낌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과 관련된 박물관을 간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깐 그 어떤 박물관 보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전쟁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총이나 무기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을 가기 전에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이곳에 박물관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홍구 선생님의 집이었다. 평화박물관은 아직 건립 준비 중이므로 이곳에서 박물관으로 가기 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준다고 하셨다. 규모가 작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신비롭게 느껴졌다. 우리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홍구 선생님님께서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설명을 들었지만 한국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집중할 수 있었다. 일단 처음 보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나오자 조금씩 표정이 어두워졌다. 국사시간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사진들에서 아픔과 고통이 느껴

졌지만 사람들이 죽어서 쌓여있는 사진이 가장 안타까웠다.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서있는 사진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한 번도 저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날만큼 내가 저곳에 가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들만 보다가 갔다면 안타깝고 슬픈 감정만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니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다.

많은 것들이 새롭고 놀라웠지만 그중에서 피카소가 한국전쟁 당시의 참담함을 담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림 속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나체로 서있었는데 그 옆에서 많은 총과 흉기를 여성들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림속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나체로 서있었는데 그 옆에서 많은 총과 흉기를 여성들에게 겨누는 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 그림은 한국전쟁 당시의 참담한 현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전쟁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생긴 전쟁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무관심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 채 그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여겼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배워야하고 알아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준다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홍구 교수님의 멋진 설명을 듣고 나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기획전시를 보러 갔다. 그곳에는 또다시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작품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평일단 처음 보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나오자 조금씩 표정이 어두워졌다. 국사시간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사진들에서 아픔과 고통이 느껴졌지만 사람들이 죽어서 쌓여있는 사진이 가장 안타까웠다.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서있는 사진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한 번도 저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날만큼 내가 저곳에 가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들만 보다가 갔다면 안타깝고 슬픈 감정만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니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다.

많은 것들이 새롭고 놀라웠지만 그중에서 피카소가 한국전쟁 당시의 참담함을 담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림 속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나체로 서있었는데 그 옆에서 많은 총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이 생각 보았다. 총4번의 인문학 강의와 2번 체험 활동을 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처음 인문학이 무엇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인문학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짧았지만 배운 것들이 많았던 강의와 체험들이 인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준 것 같다. 아직도 인문학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들을 직접 듣고 경험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 인문학이란 우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평화박물관 건립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 사이트를 통해 세상에 평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한국 전쟁기념관과 평화 박물관

송현고 2학년 이승희

1학기 마지막 에듀클러스터 시간에 전쟁과 평화에 대해 배웠다. 강의를 듣고 난 후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고, 몇주 뒤 필통모임에서 다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가져보았다. 그중 전쟁기념관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 나누기 전까지 여태껏 전쟁 기념관에 대해 큰 관심은 없었다. 이런 까닭에는 나의 삶과 전쟁이 관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 의미가 숨어있었는데 발견해 나아가면서 많은 흥미와 반성을 가지게 되었다. 기념관을 짓기위해 예산 1246억 원이라는 큰 돈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4대강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4대강처럼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기에 배움에 있어 유난히 관대한 우리나라의 관습덕분일까?

전쟁기념관은 이름부터가 논쟁거리이다. 전쟁기념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알아 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기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전쟁을 기념하는 박물관. 전쟁을 기념한다? '기념한다'라

는 단어는 대부분 생일과 같은 좋은 말과 함께 쓰여진다. 그런데 전쟁과 같이 없어야 할 단어에 쓰여진다는 점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전쟁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정부는 전쟁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기념관 앞에 시계탑이 있는데, 시계탑이 가르키는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시계탑의 두 개중 하나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멈추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기념관 안쪽에는 이름이 새겨진 화랑을 볼 수 있는데 그 화랑에는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어릴 때 들었던 데에 전사한 군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을 그저 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더욱 끔찍했다. 우리는 이름을 새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한편으로는 그들처럼 희생하신 분들도 계신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압박의 목소리마저 들리고 죽은 이들에게 당신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는 위로의 목소리까지 전달한다. 그저 돌판 하나에 그 많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이런 점을 의도한 정부와 이런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까지 매우 대단한 것 같다.

놀라운 사실을 더 알게 되었는데,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한국 전쟁기념관이 유사하다는 점이 다. 전사자 명부부터 승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실까지 여러가지가 나타난다.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이라는 개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1대1로 대치하는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스위치로 까딱하는 시대가 되었다. 당연히 더욱 죄책감이 줄었고 사람을 사람이 아닌 물건 혹은 심하게 고깃덩어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조항권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에 공감했다. 소설 속에서 적진에 끌려갔는데 불명예라는 이유로 자살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낼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과연 끌려간 사실이 불명예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중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은 할복이다. 할복을 함으로서 다른 무사들에게 위상이 되고 그들도 위상이 되고 싶은 생각에 계속 싸우게 되어 전쟁이 진행되고 미화된다. 전쟁을 미화시킨 점이 몇 개 더 있는데 그것은 벚꽃에 대한 전설이다. 벚꽃이 환하게 핀 것은 이긴 전쟁을 의미하고 진 것은 패배한 전쟁을 의미한다 라는 것인데 끼워맞추기가 도를 넘어선 기분을 느꼈다. 더욱 우스운 이야기는 벚꽃이 붉은 이유가 무사들의 피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번 시간에 전쟁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어보았고 내 생각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앞으로 더욱 이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송현고 2학년 양혜원

삼일절 아침 OBS에서 '해방되지 못한 영혼-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다. 다큐멘터리는 해방 후 약 60년이 지난 현재, 조선여자 근로정신대¹였던 할머니들의 사연을 보여주었다. 계속되는 전쟁에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은 노동력착취를 목적으로 조선에 왔고, 조선의 여자들을 피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용 항공기 공장에서 임금도 없이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들이 조선여자들을 피어가는 방법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취업을 시켜주겠다' 등으로 아주 치사했다. 게다가 근로정신대의 환경은 여러 명이 굶어죽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다. 이러한 근로정신대는 미쓰비시 외에 '도쿄마사방적 주식회사 누마즈 공장', '도토쿠 공장', '나가사키 조선소', '사가미 해군공창', '야하타 제철소' 등 많았다고 한다.

살아 돌아오신 할머니들은 근로 정신대의 일을 일본에 항의하였다. 일본에서 재판도 열렸었다. 하지만 기각되었다. 이 재판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체에서 일본

1.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란 노동력착취를 목적으로 했던 곳이며, 이것이 위안부와 많이 혼동되고 있는데 위안부란 성적착취를 위한 곳으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와는 엄격히 다르다.

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다. 그 돈 안에 근로정신대의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최근 한일협정체결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와서인지 갑자기 미쓰비시에서 노동수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에게 99엔을 보내왔다.

99엔! 우리나라에선 1250원! 그 모든 것이 고작 99엔으로 보상된단 말인가?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환율로 연금을 보내온 것이다. 이것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99엔. 아니, 얼마가 되었든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요?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는 할머니들의 한이고 우리 모두의 한이다. 그런데 99엔이라니 웃기지 않은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증인들이 사라져간다.

한국 정부에서는 근로정신대에 별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곧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살아있는 증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아직도 근로정신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관련 카페에 따뜻한 글 남기기,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등... 나는 관련 카페에 가입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글도 써볼 생각이다. 모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분이라도 일본에게서 진심이 담긴 정중한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故 김해옥 할머니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83)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도 이렇게 죽기 전에는 여기 안 와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이 사람 놓고 보니까 나도 어느 때 어떻게 당할지 몰르니까



영 외셔도 영 마음이 서글프고
우리도 좋은 일 보고 명숙에 어디나 몰랄라나

• OBS 다큐멘터리 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中



난다씨와 함께하는

‘청소녀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송현고 2학년 이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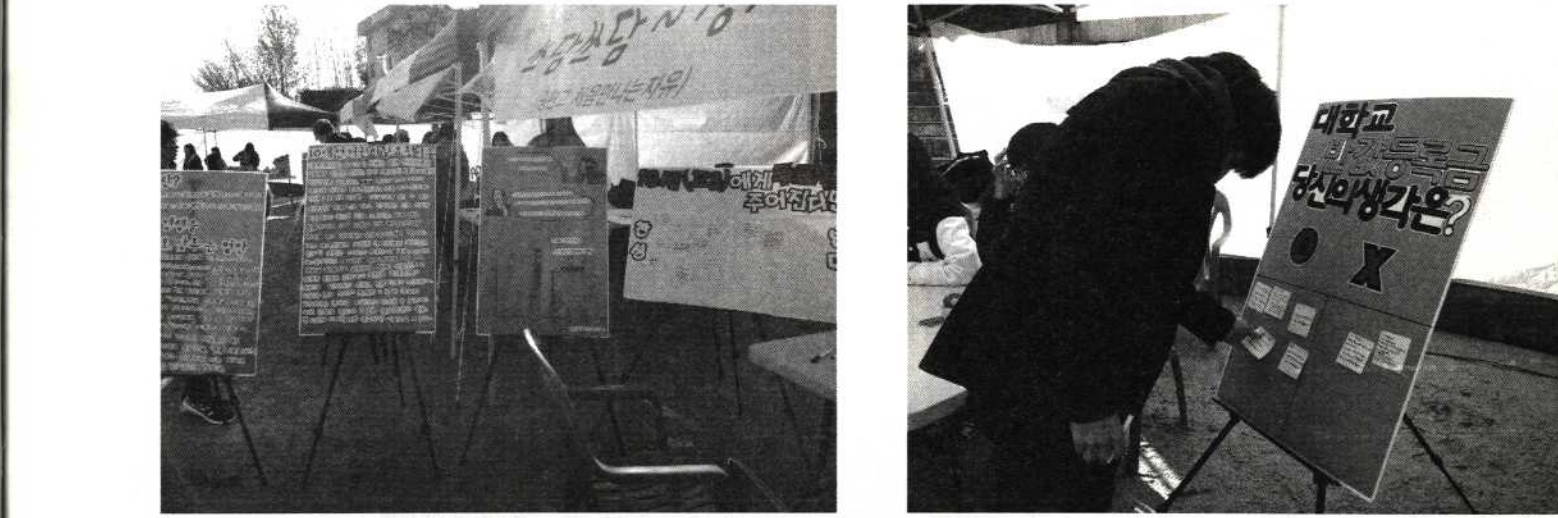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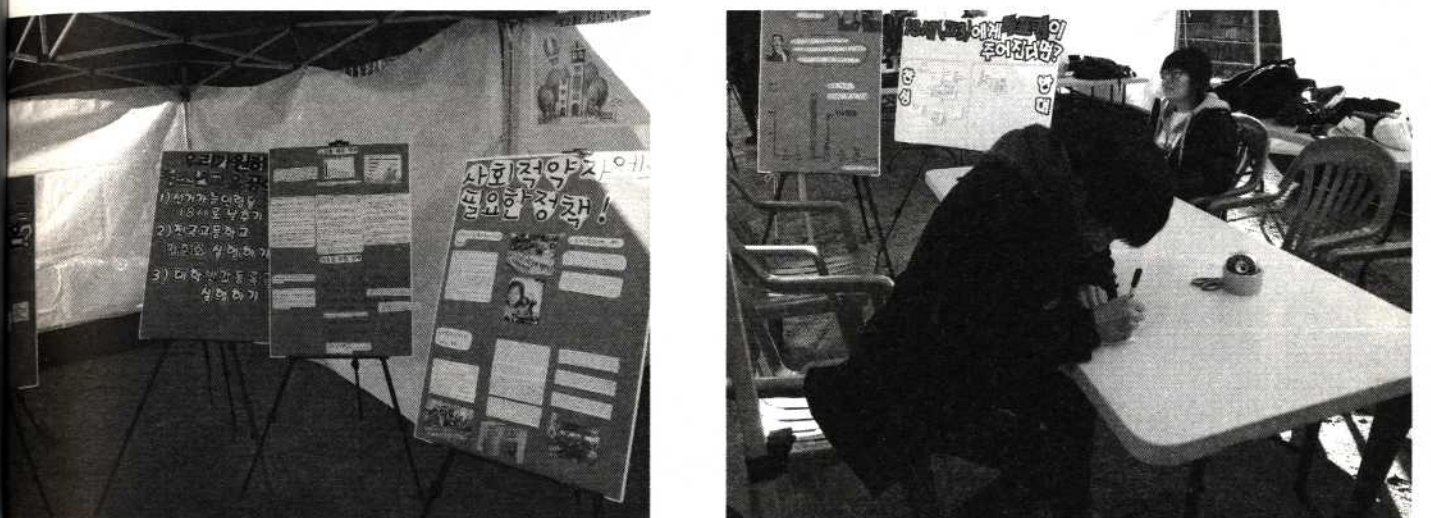
난다씨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귀여운 모습이였다. 뭔가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난다씨는 ‘왜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왜 선생님들은 성적이 높은 친구는 성적이 낮은 친구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벌을 작게 주시거나 주지 않으시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는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지.” 나는 의문이 들었다. 학생이니까.. 학생이라서. 그래서 뭘까?

난다씨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교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할까?”, “학교의 주인은 정말 학생일까?”, “왜 학생은 학생다워야 할까? 학생다운 것이 뭐길래?”, “10대는 무조건 미래를 위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하는 걸까?” 등등 나도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 보았던 질문들이다. 그러나 과거에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학생이니까’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

나는 강연을 듣다가 학생이니까. 그럼 학생은 뭘까? 생각해 보았다. 학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공부는 왜 할까?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한다. 왜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시키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의정부 청소년동아리 페스티벌 “TOK TALK”

송현고 2학년 김은정



대축제 준비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육체적으론 힘들지 않았지만 이것 저것 준비하고 만들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쓰는 일이 힘들었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힘들었지만 대축제를 계기로 부원들과 자주 볼 수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큰 축제를 위해 우리들끼리 무엇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경험이 처음이어서 더 많이 힘들고 서툴렀지만 얻고 느낀 것도 많은 시간이었다.

난다씨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교육은 잘 살고 못 살기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학원,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받아 좋은 성적을 만들어 내고 가난한 환경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다씨는 또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해야 하는, 시키는 공부를 하고 있다. 나의 꿈은 교사다. 그래서 나중에 꿈을 이루면 불평등한 교육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교사, 공부를 시키는 교사가 아닌 하고 싶은 공부를 찾게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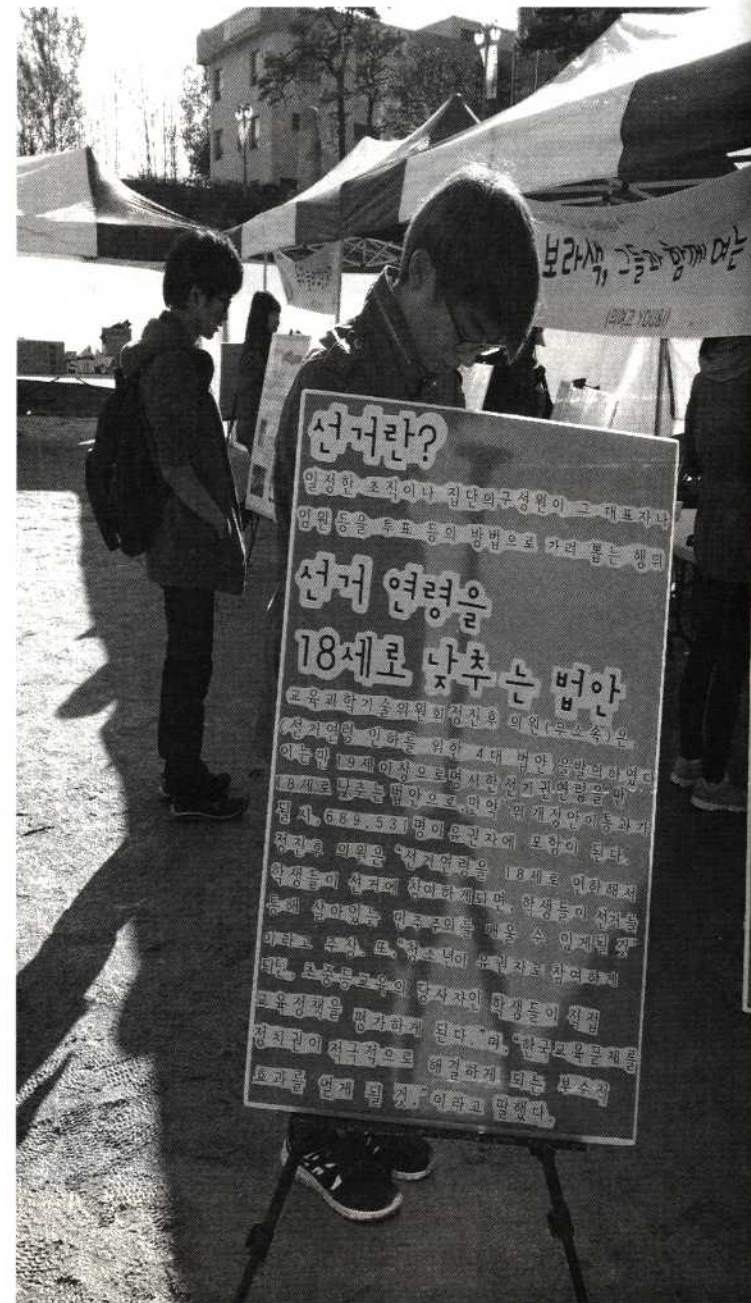
사람들은 청소년이라는 이름 안에 '미성숙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보호와 통제를 주장한다. 그리고는 실수'해볼' 기회도 책임을 저볼 기회도 차단해 버리는 것을 '보호'라고 말한다. 이런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만들어준 틀 안에 갇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닐까?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인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인권은 단지 어렵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타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라는 꿈에 더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찾게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긴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다. 이번 학기 활동이 끝나기 전에 또다른 강연을 만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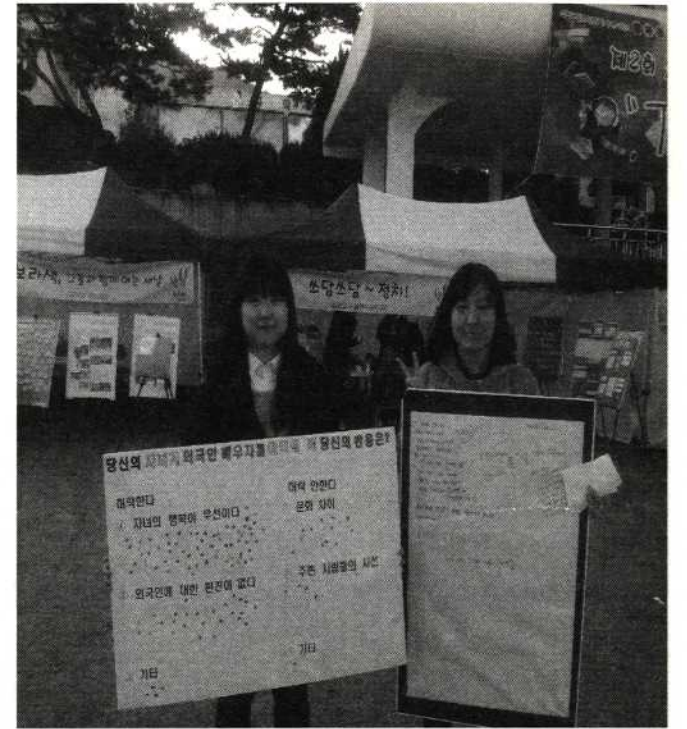




대축제 당일은 아침 일찍 몇몇 친구들과 만나 전시물들을 들고 택시로 신홍대에 가는 과정에서 전시물이 큰 탓에 끄덕끄덕 거리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신홍대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 날에 비가 온 탓에 땅은 질퍽이고 춥고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여태까지 힘들게 준비한게 헛수고로 돌아갈까봐 염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서히 축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그 사이에 선생님이 사주신 따뜻한 감자탕으로 다시 힘이 났다.



라동아리의 부스와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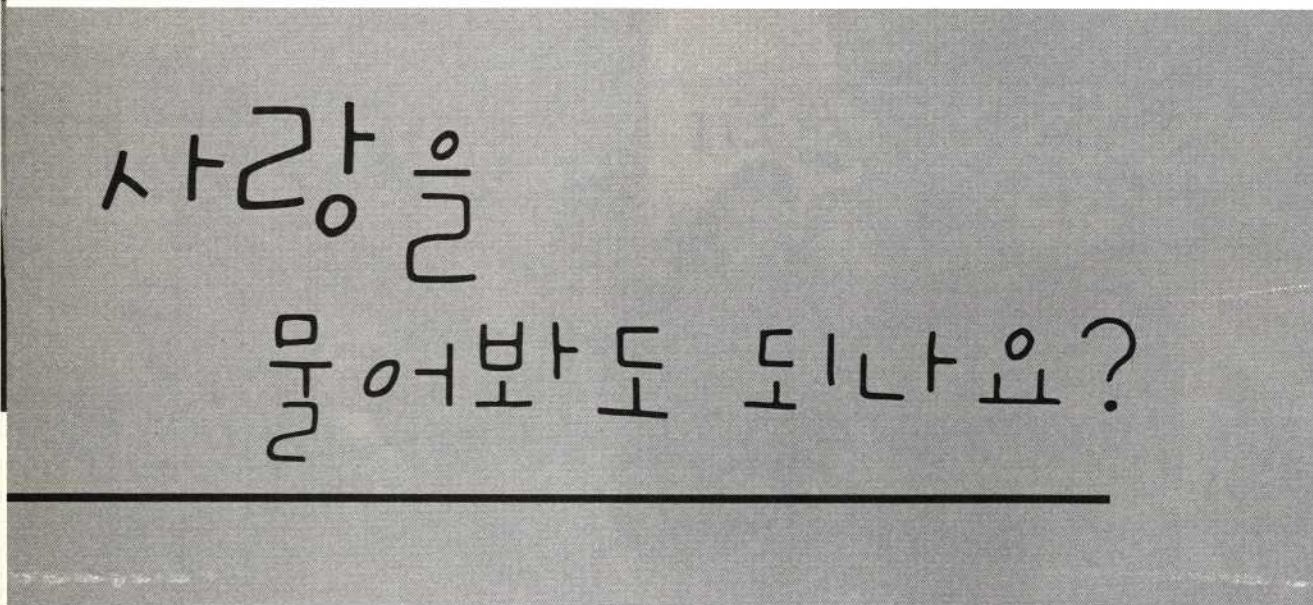
축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 각 분야별로 여러 종류의 부스가 있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부원들이랑도 편하고, 즐기는 축제 분위기에서 소소한 대화도 하고 장난도 쳤던 것이 좋았다. 또 게임을 해서 쿠폰도 얻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 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부스에도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 질문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람 있고 무엇인가 뿌듯했다. 축제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재미있었고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조금 특별한 질문,



• • •

송현고 3학년 이우재

오늘은 평소와 달리 좀 색다른 주제의 강의를 있었다. 바로 사랑에 관한 강의였다. 우리들은 평소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른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였다.

나는 평소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잘 와닿았다. 내가 평소 생각하던 사랑과 크게 다를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을 단순한 이성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왔다. 그렇다고해서 이성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다. 나는 이성간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의 감정은 엄청 그것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감정 또한 사랑이라고 여기셨다. 처음에는 '왜 구분을 안하시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으나 이내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그쳐 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과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의문은 사라졌다.

나는 이 수업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깊었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같은 경우는 상대의 행복을 위해 보냈었다. 아무튼,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저 저 상황이 너무나 잘 와닿았다.

뿐만 아니라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떠올랐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에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그 이유는 이별했다고 슬퍼한다면 자신이 했던 사랑은 이별을 통해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사랑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화자는 슬픔 대신에 희망을 가진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와 같은 상황도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임을 보냈기에 생긴 게 아니었을까?

오늘 강의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강사님이 생각하신 사랑의 개념이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다듬어 질 수 있었다. 분명 사랑에 대한 종류는 너무나 많고 말로, 글로 다 표현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배우는 중이며 그 사랑이 어떤 형태이든지 항상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너무나 어렵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현고 1학년 조현기

오늘은 학교에서 에듀클러스터로 이남석 선생님의 <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나는 솔직히 이 강연을 듣기 전 사랑은 '서로 혹은 한 명의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는 지 몰랐었다.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 사랑이란 세 가지의 사랑으로 나누어 있다고 했다. 열정(Passion), 친밀감(Friendship), 헌신(Devotion)... 이 세가지의 사랑은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한 쪽으로만 치우칠 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왜곡이 되거나 파멸에 이르는, 타락에 이르는 사랑이 된다고 하셨다.

나는 여태껏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에 슬금슬금 다가와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는 감정이며 계산,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본능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하신 이남석 선생님께서는 물론 사랑이란 본능적인 것이지만 이성으로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랑은 결국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파멸의 길이 되어버린다고 하셨다. 나는 이 말에 동감하는 바이다. 아무리 좋다고 한들 자신의 이성으로서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감당 못할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다.

활동지에 '사랑은 ()다. 왜냐하면 ()' 이런 것이 있었다. 내가 적은 것을 잠시 써본다면 '사랑은

전쟁이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자신의 연인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니깐'이라고 썼다. 물론 동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군인이 고지를 점령하려 죽을 각오로 노력하듯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위해 노력하는 것, 고지를 점령한 후 적으로부터 고지를 지켜내듯 자신이 마음을 얻은 그 사람을 뺏기거나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혜택을 받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듯이 사랑에 성공하면 행복, 즐거움, 긍정적 마인드가 생기지만 실패한다면 좌절, 우울, 부정적 마인드를 갖게되는 것 또한 전쟁과 같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랑을 '악마가 만든 장난이며 신이 내린 최고의 상이자 최고의 벌이다.'라고 정의한다. 물론 내용은 사랑을 전쟁과 빗대어 말한 것과 같다. 강연 중 선생님께서 나는 겪고있지 않지만 타인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상상만으로도 자신도 아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공감대가 있고 기억과 그런 것들을 자신의 신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극도의 고통, 극도의 흥분을 제외한 모든 감각과 감정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 생각은 그것에 대해 별로 공감을 하지는 않았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랑'이라는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말이 많이 빛나간듯 하다. 오늘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내자면 "본능적인 사랑은 이성으로서 다스려라.", "행복한 사랑을 쫓되 사랑의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어라."이다. 오늘의 강연으로써 사랑에 대해 더 알게되었고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되었다 생각한다.

송현고 2학년 김상은

1.

이남석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든 생각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참신하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사랑은 얼마나 흔하고 진부한 것이었나.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남석 강사님의 강의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 사랑에 깊이 고민해보라는 멘트도 인상깊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참 많이 받는다. 강의를 듣고 난 뒤 포스트잇에 써내야 했던 것도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었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나는 항상 난감해져서, '몰라, 그건 됐고...' 하면서 말을 돌리곤 했다. 사실 역사 속의 어떤 대문호도 그것을 제대

로 표현할 수 없을거다. 자기들의 책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표현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저자이자 '일본의 국민작가'라고 칭송받는 나쓰메 소세키의 이야기다.

그는 메이지시대 때의 사람이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날, 학생들에게 'I love you'를 해석하는 과제를 주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학생들도 그 의미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소세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남자라면 사랑한다는 말 대신 '달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낭만을 가져야 한다는 답살돋는 일화다. 문학과 낭만을 사랑했던 소세키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마다 다르고 어렵다는 것이었다.

2.

한때 플라톤과 니체, 스탕달과 쇼펜하우어에 죽자고 빠졌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나이였던 게 맞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위대한 사상가들의 철학을 전부 이해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 철학의 난해함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고 끊임없는 고뇌 끝에 아주 잠깐 주어지는 달콤 씹살한 깨달음에 매료되어 그들의 책을 즐겨 읽었다. 우습긴하지만, 사실 지식은 가끔 지식 그 이상의 것도 선물하는 것이다. 가령, 지식을 갖췄다는 그 본연의 본연의 충족감 같은 것들. 이해가 되던 안되던 그런 책들을 읽으면 자신이 마치 지식인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약간은 비뚤어진 재미를 이유로 나는 자주 책을 손에 들곤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을 가져왔던 건 사랑에 대한 그들의 이론이었다. 내가 보기에 사랑은 철학자와는 거리가 먼 주제였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자들은 사랑을 아주 값 싸고 덧없는 모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았다. 사랑은 사실 이성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사랑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철학자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늘 궁금증이 들었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에서 어떤 본질적인 철학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그것에 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사랑은 왜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배우지 않았음에도 항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아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랑론을 풀어놓은 호수에서 어떤 깨달음의 물고기도 낚지 못했다.

그러다 언젠가, 플라톤의 '향연' 중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한창 읽던 중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인류의 기원에는 두 개의 머리, 네 개의 팔다리를 가진 인간이 존재했는데 각각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몸이 붙어있는 세 가지 부류였다. 최초의 인간들은 그러나, 스스로의 완전함에 취해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 신의 분노를 사 벌락을 맞아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며 반으로 나뉜 인간들은 불완전한 몸이 되어 서로의 반쪽을 찾아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나뉘게 된 기원이란. 재밌는 이야기였다. 이 짧은 글은 고대 그리스시대를 넘어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후에는 뮤지컬에도 등장하게 된다. '헤드워'의 메인 넘버이자 아직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팬들 사이에 널리 사랑받고 있는 'the origin of love'가 그 주인공이다.

사실 이남석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일주일정도 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을 가졌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였다. 거기서도 선생님이 '헤드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다.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영화 '헤드워'를 인상 깊게 본 나 역시도 그 이야기가 즐거웠다. '헤드워'는 사실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독일제국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다루는 뮤지컬이자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찾고자 노래하는 헤드워의 성장 드라마에 가깝다. 역시 소모임

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카지'같은 뮤지컬도 브로드웨이에서 크게 흥행했을 정도로 훌륭한 드라마를 가지고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아직 낯선 소재인 것처럼, 헤드워 자체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주제 때문에 기독교단체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굴레를 씌우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도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그것을 더럽고 비정상적이라며 야료를 부리는 사람들이 더 우습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게이니 트랜스젠더니하는 걸 떠나서 자신을 배신한 토미가 후회와 고백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벌거벗은 채로 극장을 빠져나가는 헤드워의 뒷모습은, 나를 오랜 시간 서성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토미를 향한 헤드워의 감정, 루터를 향한 한셀의 감정이 과연 사랑이었을까를 고민하게 했다.

처음엔 나 역시 영화임에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헤드워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후에 이르러서는 나도 감독과 헤드워이 말하는 사랑, 그 본연의 관념과 마주하게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나와 헤드워는 출발점이 다를 뿐 목적지는 결국 하나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화살표를 따라가며 어느 꼭지점을 향해 달려갔던 곳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deny me and be doomed'.

나를 부정하면 파멸하리라.

내가 그로부터 배운 사랑은 그것이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 나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상처받아도 좋고 상처를 입혀도 좋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나를 부정함은 곧 파멸이므로.

'the origin of love'에서 헤드워가 부른 노래 가사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건 뭐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의 말처럼 본래 두 사람이 한 몸이었다가 둘로 나뉘어서인지는 몰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사랑도 불완전하다. 그리고 불완전함은 완전해지고 성숙해지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헤드워는 자신의 영혼의 반쪽을 토미라고 믿고 그에게 지혜라는 뜻의 '노시스'라는 이름을 준다. 뿐만아니라 록음악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그가 록스타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토미는 헤드워의 지위질 수 없는 남성성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친다. 헤드워는 토미에게 배신당한 슬픔에 몸부림친다.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에게서 버려진다. 다시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말하자면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게 만든 운명의 사슬이었다. 완전함에 대한 갈증은 모든 인간들의 꿈이었고 불완전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 숙명의 과제였다. 시인은 그것을 글로써 해소하려했고 화가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영화 'Hedwig and the Angry Inch, 2001' 중

는 그림으로써 해소하려했다. 헤드웍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헤드웍은 불완전한 존재인 자신을 토미의 노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하고. 그건 어떤 종류의 용서는 아니고, 그냥 받아들임이다. 엄마로부터의 부정, 루터로부터의 부정, 세상으로부터의 부정. 그리고 끝내 첫사랑 토미로부터의 부정까지. 부정, 부정. 헤드웍은 비난과 멸시, 부정속에서 자라나며 자신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은 이것저것 찢어붙인 몽타주이며 콜라주' 라는 노래를 부르며 모든 것을 벗어던진 채 파멸에 이르는 헤드웍은 님마가 된 채 토미의 노래를 듣는다. 그건 그 무엇도 부정하지 않는, 오직 사랑의 추억과 미안함으로만 가득한 사과의 노래였다. 토미의 노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받아들여

진 것이다.

나는 헤드웍에게서 자신의 영혼의 반헤드웍은 불완전한 쪽을 찾아 외로운 여행을 해야하는 방랑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에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읽었다. 인간의 영혼을 성숙시켜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닌가 한다. 남을 사랑한다는 건, 제 자신의 불완전함과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겪어왔던 사랑이야기들은 항상 꿈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사랑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내게 있어 사랑은 동화같은 것이었고 딱딱한 삶의 무게에 지쳐 무언가 말랑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공상소설같은 것

이었다. 헤드웍은 분명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지만, 그 깨달음은 내가 고민해왔고 궁금해왔던 사랑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단 힌트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해왔던 사랑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정의내리는 것이 아닌 내가 발견해내는 사랑을 찾으라는 것. 그것이 헤드웍이 내게 준 힌트고 깨달음이었다.

오남석 강사님의 강의는 사실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확연하게 갈라졌다. 나는 내가 사랑을 해왔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사랑의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의 차이'라던가 '잘 헤어지는 법'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심정'같은 것들이 낯설었다. 나에게 사랑은 아직 보이지 않는 안개속에 있는 것만 같다. 순정만화의

여주인공처럼 내가 로맨틱한 사랑에 어떤 환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내게 사랑은 아직 어렵다. 사랑을 어렵게 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의하는 내내 사랑에 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나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랑과 '헤드웍'에 대해 떠올렸다. 어쩌면 그것이 강사님이 원하셨던 게 아닌가 한다. 어찌됐든 사랑을 고민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들이 하는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열일곱, 열여덟, 기껏해야 열아홉인 우리는 빛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사랑을 즐긴다. 제 몸이 타버리던지, 아니면 오히려 날개짓에 불길이 위협적으로 흔들리던지 간에 이런 사랑



공부기 뭐냐고 물어선다면

공부, 도대체 왜 하는대?

술술 읽기와 빨리 읽기는 달리

주의 집중에도 요양이 필요하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때고 생각하면 안 돼

민복의 기이름 주시 않는 학교

그럼 그리며 공부하기

메들릿기와 정리하기

어젯속을 정리해야 답이 떠오른다

민복이 좋겠다고?

장조성민 민복에서 나온다

허 당 선 생 의 공 부 뒤 집 기

이것이 공부란 무엇인가

이한 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 아직 어린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자하는 본능 같은 것이 있다. 다만 사랑할 때만큼은 철없다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자. 철없는 사랑은 더이상 젊음의 상징도 로맨틱함의 대명사도 아니니까.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듯이,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사람이 되보는 건 어떨까. 물론 강사님의 책을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테고.

은 제 자신과 상대방을 잡아먹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 강사님이 말했던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한다.

블레이크 파스칼은 그의 책 '광세'에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이성과는 다른 그것만의 독특한 논리가 있다고 말한다. 파스칼은 데카르트를 부정하고 이성보다는 감각과 느낌, 마음속의 진리를 중요시 여긴 철학자였다. '마음'은 번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책을 읽을 당시 그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는 '사랑'이라고 해석했었다. 마음 중에는 분명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것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논리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의 특성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가는 대로 흘러가며 사랑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성없이 가슴으로만 하는 사랑이 서로를 쪼먹는 사랑이 되지 않으리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랑이 어찌면 항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돛 하나 달고 평생을 함께 할 연인을 찾아 넓은 바다를 이리저리 헤메는 사랑은 낭만적이면서도 얼마나 어리석나. 우리는 잠깐 닻을 바다속 깊숙이 내려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혹은 그녀를 향한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더 잘,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언젠가 끝이 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헤어져야 덜 상처받고 덜 괴로울 수 있을 지, 더 아름다운 이별 방법은 무엇인지. 의미없는 항해를 그만둘 것인가, 혹은 확실한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일지도 모른다.

이한 강사님이 들려주는

청소년과 공부

송현고2 홍유진

교내 인문학 교실을 통해 <이것이 공부다>라는 책의 저자인 변호사 '이한'씨에게 '청소년과 공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게 되었다. 원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셔서 재미있고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이 강의를 듣고 공부라는 것이 단지 국어, 수학, 영어가 아니라 자신이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구체적인 공부 기술보다는 공부라는 개념을 잘 정의해 주신 강좌였다.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열심히 해나간다는 것. 그 자체도 큰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을 연습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만 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부는 순전히 내 판단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잘못할수록 열심히 해서 극복해 나갔어야 했는데 나는 오히려 피해버렸다.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공부 외에도 내가 힘든 건 다 피하려고만 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피하기만 했던 상황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더 이상 피하는 삶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했고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져서 두려웠다.

그러나 부딪혀보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내가 하기 싫어 등한시 했던 과목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늦었던 가능성이 없든 나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니깐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포기할 필요가 없고 모든 열심히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즐겁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포기하는 삶보단 쉽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이한 변호사님의 인문학 강좌였다.

외부기고글

우리와 조금은 '다를 권리'에 대하여 -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 이야기

송현고 2학년 원가영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서 그런가요. 바로 연예인에 관한 가십거리입니다. 누가 잘생겼다, 누가 예쁘다, 라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루머 이야기까지. 그러다 어쩌다 어떤 연예인이 동성애자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은 금세 굳어집니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회피를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정은 하는데 주위에 없었으면 한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직설적으로 더럽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내보이는 친구들에게 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박하냐는 소리를 듣고 오해를 산적이 있거나, 제가 너무 개방적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만 난무할 뿐이었죠. 그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 어때?'라는 반응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참 답답해지더군요.

물론 학교에서만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문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사회로 들어오면 이런 광경은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연극을 보러 찾아간 극장에서조차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극중에서는 동성애 소재를 아주 조금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재가 나오자마자 '내가 여기까지 와서 호모를 보아야 하나'라는 반응이 뒷좌석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감성을 채워야 하는 극장에서 저는 불편만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성애자는 사람도 아닌 사회가. 일반인과 성소수자에도 위 아래가 있는 사회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소수자인 것도 모자라서 보통 사람들에게도 눈치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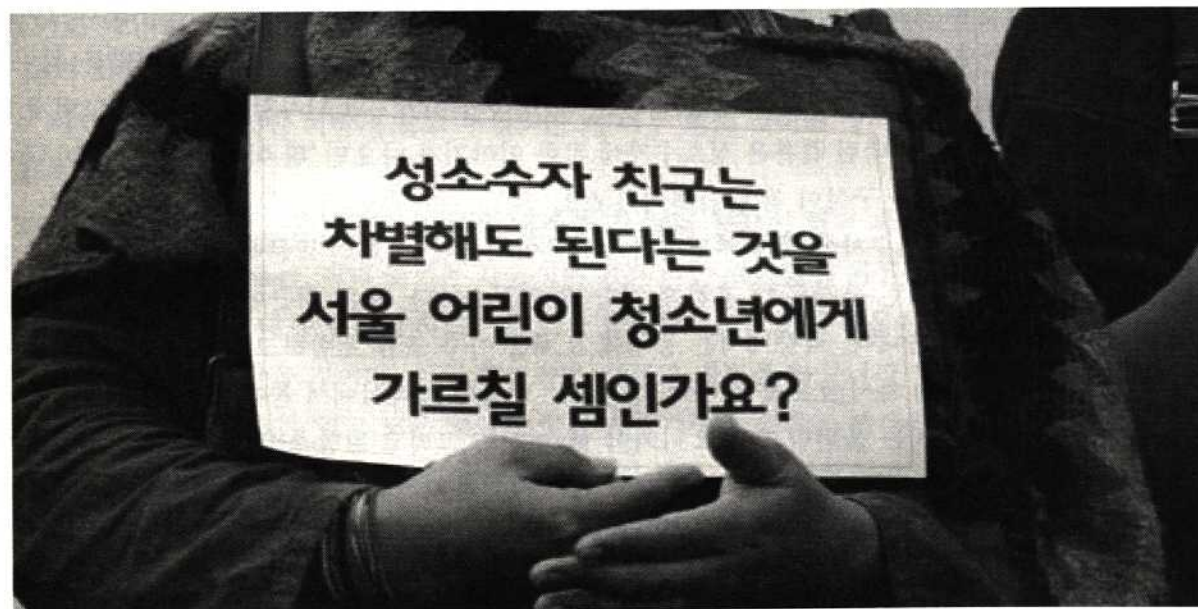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청소년이고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지키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인권조례에서 평등권은 청소년인 성소수자만 쪽 빼놓고 지켜져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성소수자가 일구어낸 서울학생인권조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사의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속전속결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서야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이어 세번째로 학생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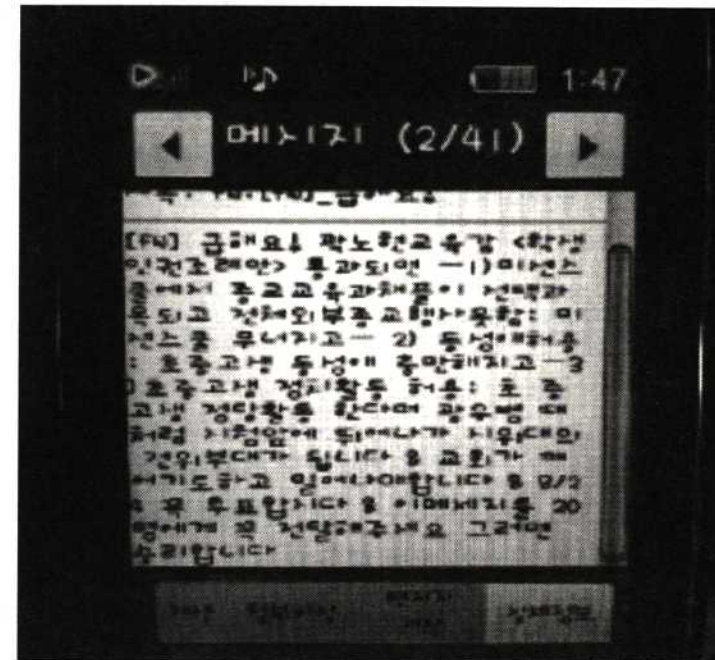
하지만 사람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생각만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보수단체와 보수성향의 주류언론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상당히 아니꼬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은 우습게도 가장 기본적인 평등원칙, 차별금지조항을 문제 삼으며 호모포비아(homophobia,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과 별개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1년 9월 7일경 발표한 초안의 제안규정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달리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만 쪽 빼놓고 초안을 발표했던 것이죠. 이유,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은 2013년, 그러니까 3년 전인 2010년. 서울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의 뜻대로 전면 무상급식이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의 실시에 반대하는 투표가 발의되었고, 2011년 8월 24일 전국민의 관심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 교육청을 비판하며 강경하게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단 중에서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이런 괴상한 문자가 돌기도 했죠.

급해요! 광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되면 1) 미션스쿨에서 종교교육과 채플이 선택과목이 되고 전체 외부 종교 행사 못함: 미션스쿨 무너지고 2) 동성애 허용: 초중고생 동성애 총만해지고 3)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 정당활동 한다며 광우병 대처처럼 시청 앞에 뛰어다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됩니다.



주민투표당시, 기독교인 중심으로 돌던 괴문자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25.7%로,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투표 과정과 이후에 발생한 광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성적 지향' 차별 금지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 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정이 되었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 조항과 법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죠.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는 여러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한 최종안에 서 '성적 지향'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신문 기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특히 '동성애'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신기도 했습니다. 과거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 혹은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보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폭력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타겟이 된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내몰리게 되자 서울시의회 점거 시위 -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 를 진행하고 알려지게 되자 많은 국제연대에서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NGO 단체들이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까지 진행되기도 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사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 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도 처음이었고요.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에서 찬성 54명으로 넘어간 일도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들려져오는 바로는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점거 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사회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현실

제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된 계기는 친구의 커밍아웃 때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며칠을 고민해서 보낸 문자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부분에 대해 회의감이 잔뜩 섞여져 있었습니다. 함부로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힘이 든다니. 웃기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05년 한국의 13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45.7%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수용정도, 아웃팅,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같은 사회적 반응이 이들의 우울과 자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겪고 있으며,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후에는 반동성애 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폭언과 편견으로 이어지는 차별

교사들의 폭언과 편견 조장, 비하발언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미국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속어를 모든 학생에게 가르쳐주며 한 학생을 놀림감으로 만들었다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중학교 3년 내내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야 했지만 이런 불행은 교사에게는 그저 즐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했을 뿐이었죠. 이렇게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신이 가진 편견을 교육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조장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여학생이 머리가 짧거나 남학생이 암전하다는 이유로 '레즈비언이 아니냐'라든지 '네가 하리수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거냐'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적당한 학생을 혐오 대상으로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사회 수업시간이 되어 들어온 20대의 젊은 여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대뜸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며 폭언을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미쳤거나 뇌가 없어서 하는 거다. 동성애는 임신을 안 하니까 더 낫지 않냐고 하는데, 역시 정신 나간 애들 이라 생각을 그대로 한다. 내가 여고, 여대를 나와서 그런 애들 많이 봤는데 정말 토할 것 같았다." 라는 발언을 하시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셨습니다. 같은 학급의 학생들은 교사의 발언에 킁킁대며 맞장구를 치며 저를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교사들에게까지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급 내에 학생들의 대부분은 저의 성적 지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업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애들이 제 앞에서 선생님의 발언을 인용하며 "들었냐? 뇌가 없거나 미친거라. 뇌가 없는 걸까 미친 걸까?", "미친 거겠지.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잖아." 라는 대화를 나누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안산시 A 고등학교 사례)

교사들의 이런 편견은 수업 시간에 비하발언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발언은 물론, 체벌, 정학이나 전학 조치, 퇴학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죠. 이런 차별의 역사는 2002년경부터 시작된 '이반 검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성애자를 색출한다는 의미의 이반 검열은 학생들이 서로를 밀고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충격적이죠.

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접수된 사례중 20%는 모두 또래 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교사나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에게 당한 일이 대부분이죠. 가벼운 도둑질(필통, 교과서 등이 필요하면 제 것을 주로 훔쳐간다던지)에서부터 책상과 의자를 넘어뜨려놓는다거나 교과서와 책상, 의자 등에 이*같은 욕설들을 적어놓기도 했고 뒤에서 종이를 뭉쳐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게 학교를 다니는 2~3년 동안 쭉 지속되어 왔죠. 심지어는 단순히 제가 뒷자리에 앉았다던 이유만으로 맞아서 병원까지 간 적도 있고요. 길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넘어진 저에게 침을 뱉기도 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그것은 극도의 소외감으로 다가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교사들은 자신의 제자가 동성애자임을 알았을 때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교육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여기는 교사의 경우 동성애 정체성도 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거나 학생으로서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이 가져오는 결과는 부모의 폭력이나 또래의 따돌림, 학교에서의 차별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최근 교사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것이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의 태도가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로 소문이 난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자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설사 자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증언을 들을 수는 없지만, 괴롭힘에 시달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없음을 애도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증언이 없으므로 이런 '고통'은, 이런 '자살'은 없다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학교는 안전한 공간인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인가를 말이에요.

큰 질서를 위한 작은 폭력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배제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 프랑스의 역사학자 미셸 세뜨루의 말 중에서

인간의 사회집단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타자'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경계 짓기 위해 외국을 만들고, 정상을 그리기 위해 비정상을 만들고, 중심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자에 의해 형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자는 우리가 아닌 자들이며, 우리는 곧 타자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타자'는 또 누구일까요? 뿌리내린 자는 누구이며, 뿌리 없는 자, 무적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누구의 뿌리를 결정하며, 누가 누구를 배제합니까? 끊임없이 유동하는 사회에서 도대체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일반이라 취급하는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며,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혐오하는 타자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에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과 욕망을 양성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결속을 다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다른 사람이 반드시 '외부'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와의 과도한 적대행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일부를 '외부'로 취급하여 소수자로 만드는 것이 단결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세계 각지에서 보이는 성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실제로 그 많은 부분이 사회집단의 긴장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된 집단폭력이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과 '다를 권리'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자기결정권의 결과가 타인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는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다른 개인과 사회로부터 함부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억압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름의 다양성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존엄성입니다. 타인과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듯이 타인과 다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즉 다를 권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

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다를 권리의 인정에 대해 매우 인식합니다.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한다는 법. 하지만 그 속에도 그늘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보편성과 일반성은 억압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지향하는 통념이라던지, 사회적 편견도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인식하고 말이죠.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문제가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승화가 될 때, 그의 문제는 그저 하나의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틀에 박힌 지금의 질서는 인권이라는 벽과 부딪혀 새로운 인권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사회는 그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고요. 성소수자만 유독 배제되었던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변화가 피해진다면 사회 전체를 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한 무언가가 이익으로 포장되어 대중 앞에 던져지고,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질을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변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

- 03.19 인권동아리 '처음 만나는 자유' 1기 탄생
- 04.16 '청소년 인권수첩(크리스티네 슬츠-차이스, 공현)' 독서토론 세
미나
- 05.07 서울숲 소풍
- 06.04 '마블 알엄씨와 함께 하는 이주민 인권 이야기' 강연
- 06.11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박경태)' 독서토론 세미나
- 06.18 이주민 인권 세미나 "불법 사람은 없다"
- 07.27 전쟁과 여성 인권 세미나 "20년간의 수요일"
- 08. 수요집회 참석
- 09.03 '인권 티셔츠' 제작 활동
- 09.08 교내 축제 '슬피제'에서 인권 카페 '처음 만나는 자유' 운영
- 10.12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인권 시리즈 강좌 시작(강사 인권연대
활동가 오창익) 인권 강좌 1회 "알기 쉬운 인권의 이해"
- 10.22 인문학 답사 '다문화, 역사, 사람이 숨쉬는 숨결' 참가 인천 차이
나타운 일대 및 안산 국경 없는 마을
- 10.26 인권 강좌 2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풍경'
- 11.02 인권 강좌 3회 '학교와 인권'
- 11.16 인권 가오자 4회 '나와 우리를 위한 인권'

2012

- 03.16 '처음 만나는 자유' 2기 면접 세미나-'인권, 교문을 넘다(배경내
외)' 독서토론 세미나 (1회 - '복장 단속, 무엇을 단속하는가')
- 04.13 '인권, 교문을 넘다(배경내 외)' 독서토론 세미나 (2회 - '두발의
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체벌과 폭력 사이')
- 04.14 교내 에듀 클러스터 '토요인문학교실'참가
- 04.28 인권 영화 상영 및 토론회 "과수꾼"(에듀 클러스터)
- 05.26 에듀클러스터 소모임 '필통(feel通)' 결성
- 05.27 윤독 독서 소모임 활동 시작(청소년 사회 참여, 여성, 청소년,
빈곤, 인권 일반 등의 주제로 인권 관련 도서 10여권 선정)
- 08. 수요집회 참석
- 08.08 ~
- 08.10 여름 학생 인권캠프 '학생인권마시쩍' 참가(부장 참석)
- 09.21 '난다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인권' 강연
- 10.12 윤독 독서 소모임 활동 중간 발표회
- 10.26 '인권의 눈으로 본 대선 후보 공약' 토론 세미나 행복한 인권 을
위한 의정부 교육대토론회 참가(부장 참석)
- 11.16 ~
- 11.17 의정부동아리 축제 'Tok talk' 참가 '쓰담쓰담~ 정치! - 청소년,
정치를 만나다' 부스 운영

처음 만나는 자유

발행인	송현고 '처음 만나는 자유'
표지 디자인	김상은(2-1)
표지 일러스트	동양화가 김진국
편집인	김상은(2-1)
발행일	2013년 2월 23일
